

# 문화욕구에 영향을 미치는 문화예술교육의 정책효용성: 문화관련 ‘제도’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서 인 석

## 국문요약

본 연구는 21세기의 삶의 질적 고양에 문화가 배제하고서는 어려울 수 있으며, 개인이 원하는 적합한 문화생활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를 위한 다양한 경험이 중요함을 강조하면서 이러한 문화욕구와 내재 및 제도화된 경험 간의 인과관계를 검증해보고자 하였다. 과거의 체화된 교육경험을 선행변수로 선정하고 다양한 제도적 채널을 매개변수로 간주하고, 문화욕구를 최종적인 변인으로 하는 구조모형을 설정하여 구조방정식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체화된 경험’으로써 유소년기문화예술교육은 향후 문화와 관련된 다양한 제도를 선택하게 하는 중요한 인자(因子)였다는 점을 확인하였으며, 이에 유소년기문화예술교육의 일반적 제도화로 구성해 학습하는 것이 중요함을 제시하였다. 또한, ‘제도화된 경험’으로써 제시한 4가지 매개변인 중 3가지가 문화욕구를 강화하는 변인인기에 다양한 제도 및 채널이 중요함을 제시하였고, 이때 매체이용경험이 다른 어떤 매개변인보다 큰 효과를 가지고 있었기에 문화콘텐츠를 향유할 수 있는 다양한 매체와 매체를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기회를 제도적으로 강화할 것을 제안하였다.

주제어: 문화욕구, 유소년기 문화예술교육 경험, 체화된 경험, 문화 ‘제도’, 구조방정식 조절변수 및 팬텀변수

## I. 문제의 제기

사회의 불평등을 바라볼 수 있는 가장 일반적인 척도는 소득수준 또는 물리적 자본이다. 그렇다면 돈의 분배만이 불평등을 확인할 수 있는 요소인가? 아니면 지금 또는 미래의 불평등은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는가? Bourdieu(1984)의 논의에 주목한다면 미래의 불평등은 ‘문화’가 된다. 21세기 자본론으로 크게 주목받은 토마 피케티는 21세기에는 벌어들이는 소득이 불평등을 조장하는 것이라기 보다는 현재까지 가지고 있는 물질자산이 불평등의 차이가 된다고 지적한다. 토마 피케티의 논의는 전세계적으로 주목받을 만큼 그 분석의 신빙성이 확인되고 있다. 그러나 이 논의에서도 여전히 불평등의 궁극적인 가치는 잘 확인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즉, 경제적 생산관계로 환

\* 이 논문은 2013년도 정부재원(교육과학기술부 인문사회연구역량강화사업비)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NRF-2013S1A3A2054622).

원되지 않는 사회적 계급관계나 불평등의 문제인 삶의 양식 또는 질적 측면은 문화적 소비나 문화적 기회와 관련된다는 것이다.

Bourdieu(1984)의 논의가 아니더라도 최근 부각되는 삶의 질 또는 행복과 관련된 논의는 문화 불평등이 주요한 주제임을 상기시킨다. 인간의 삶의 질 또는 행복을 연구하는 많은 학자들은 삶의 웰빙은 단순한 돈의 의해서 발생하기 보다는 삶의 가치를 누릴 수 있는 다양한 여건을 통해 해소될 때 비로소 가능하다는 것이다. 여기서 주목해봐야 하는 것이 '다양한 여건'인데, 인간의 삶은 '일', '취미생활', '가족생활', '여가' 등 다양한 요소로 구성되며 이러한 다양성이 충족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열거된 다양한 여건은 누군가의 '문화'라는 한 단어로 귀결되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문화에 대한 다양한 경험과 지식은 중요해진다. 나의 삶에 중요부분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줄 수 있기 때문이다. 이호영 외(2011: 91)는 문화를 접할 수 있는 교육의 경험은 부모의 경제수준에 의해서 차별적 문화예술교육을 통해 문화적 재생산과 계급화를 구축한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이러한 문화 교육의 경험은 문화소비 활동으로도 이어짐을 강조한다. 사실 이러한 논의는 이미 Bourdieu(1984)에 의해서 제기된 논의이기도 하다. Bourdieu(1984)는 개인들은 각각의 의견을 가지고 있으며, 사회세계와 일상적 현상을 받아들이는 인지 및 해석의 준거기준을 가지고 있다고 강조한다. 그는 아비투스(habitus)를 이러한 성향의 체계로 지칭하였으며 이러한 아비투스가 사회적 위치에 따라 다른 경험을 축적하면서 집합적 성격을 갖게 된다는 것이다. 조돈문(2005: 4)은 사회의 계층이 존재할 때 그 차이에 따라 다른 문화적 차이가 발생하는 것은 많은 연구결과를 통해 보여진다고 언급한다(Berstein, 1975; Bourdieu, 1984; Marshall, 1997; Katz-Gerro, 2002; Tomlinson, 2003; Weininger, 2004). 이는 과거에 경험한 문화적 학습과 향유할 수 있는 한정된 여건이 지속적으로 축적되면서 학습되거나 내재화된 문화만을 중심으로 문화를 향유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중요한 점은 누릴 수 있는 문화는 자신의 선택으로 외연적 확대가 어렵다는 점이다. 오히려, 제도나 교육을 통해 강화할 때야 비로소 문화를 누릴 수 있는 기회의 평등이 확보될 수 있다. 결국, 문화의 향유는 오랫동안의 체화된 그리고 내재화된 경험을 통해 이루어지게 된다. 만일 이러한 가설이 진실이라면 누군가는 모든 문화를 취사선택할 수 있으나, 또 다른 누군가는 시작부터 누릴 수 있는 문화는 거의 없어 질 수 있는 것이다.

본 연구는 21세기의 삶의 질적 고양에 문화를 배제하고서는 어려울 수 있으며, 개개인이 원하는 적합한 문화생활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를 위한 다양한 경험이 중요함을 강조하면서 이러한 문화욕구와 내재 및 제도화된 경험 간의 인과관계를 검증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우선, 체화 및 제도화된 경험의 의미를 이론적 검토를 통해 도출하고자 한다. 자신의 정체성이 확보되는 시점에서의 교육과 경험은 성장기간 동안 내재화의 시간을 거치게 된다. 또한, 내재화된 경험은 유사 제도를 선택할 수 있는 인자가 될 수 있으며, 이러한 인과고리하에서 문화를 누리고자 하는 의욕이 강화될 수 있다. 다음으로, 내재화된 경험과 제도화된 경험, 그리고 문화욕구 간의 인과적 경로관계를 검증해보고자 하였다. 각 경로 간의 경험적 가설을 제시하고 검증을 시도하였다. 마지막으로, 분석결과에 기초해 문화에 대한 불평등을 해소하고 문화의 선택 및 향유를 강화할 수 있는 정책적 시사점에 대해 논의해보고자 하였다.

## II.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검토

### 1. Easterlin 패러독스와 문화적 삶의 부각

최근 Easterlin과 같은 학자들은 소득과 행복은 지속적인 선형관계가 아니며, 주관적 웰빙이나 행복 등은 소득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기영화 외, 2004; 서인석 외, 2014a; 2014b). 그의 연구에서는 지난 50년 동안 서양 사회의 실질임금 성장에도 불구하고 행복감은 상승하지 않았으며, 미국에 대한 연구에서도 1973년~2004년 동안 실질임금은 2배로 증가했으나, 행복감은 전혀 증가하지 않았다는 것이다(김윤태, 2009: 77). 이는 소득과 행복의 관계가 소득이 높아짐에 따라 한계효용이 감소하는 곡선의(curvilinear) 형태를 지닌다는 것이며(Diener, Sandvik, Seidlitz, and Diener, 1993: 204; Diener and Biswas-Diener, 2002: 119), 돈으로 살 수 있는 행복도 한계가 있다는 것을 부각시킨다. 다시말해, 소득과 주관적 웰빙 사이에 관계는 한계효용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다.

소득에 대한 Easterlin 패러독스는 그래서 삶의 질 연구에 있어서 중요한 기초가 될 수 있다. 삶의 질은 삶에 대한 만족도 혹은 행복과 같이 주관적인 측면과 소득의 문제와 같은 객관적 물리적 측면을 함께 가지고 있다(구교준 외, 2014: 318). Easterlin 패러독스는 소득과 같은 객관적 측면의 삶의 질이 행복과 같은 주관적 측면의 삶의 질로 당연히 전환될 것이라 가정에서 발생한다고 봐야 한다. 물론 소득과 같은 측면은 좋은 삶을 위한 기초적 수단적 성격을 가지고 있기에 주관적 삶의 질과 관련성이 높다. 다만, 이것이 필요조건이지 충분조건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결국, 돈으로는 삶의 가치를 높이는 것은 제한적임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무엇으로 인간의 삶을, 그 가치를 높일 수 있을까? Easterlin의 주장은 자연스레 문화와 관련된다. 인간의 삶의 질 또는 행복을 연구하는 많은 학자들은 삶의 웰빙은 단순한 돈의 의해서 발생하기 보다는 삶의 가치를 누릴 수 있는 다양한 여건을 통해 해소될 때 비로소 가능성을 강조한다. '다양한 여건'이라 함은 인간의 삶은 '일', '취미생활', '가족생활', '여가' 등 다양한 요소를 말하는 것으로 다양한 여건은 누군가의 '문화'라는 한 단어로 귀결될 수 있다. 이러한 논점은 문화를 소비함으로써 자신과 타인을 구분하고 사회적 차이를 만들어 낸다는 계급의식(Bourdieu, 1986) 보다는 문화소비 및 향유가 개인의 정체성을 형성하고 중요한 기제로 기능할 수 있다는(조광익 외, 2010: 292) 것에 더 가깝다. 이는 어떠한 문화를 누리느냐가 그 개인의 정체성을 가늠할 수 있다는 것이다. 나아가, 기존에 경험하지 못한 다양한 문화적 체험은 흥미로움과 루틴한 일상으로부터의 자극과 변화를 가져와 활동성을 높이고, 기분전환의 시간을 부여한다. 즉, 문화를 향유한다는 것은 소득수준이 주지 않는 인간행복(Inglehart, 1997: 61; Inglehart, 2009: 219)을 다양한 일상변화를 통해 부여한다는 의미이다.

이렇게 문화를 향유하는 것이 중요하다면, 문화를 어떻게 이용하고자 하는지, 어떠한 내적상태에서 이러한 문화 향유가 이루어지게 되는지에 대해 생각해보아야 한다. 유승호(2005: 15-16)는 현대의 디지털시대에서는 문화를 얻으려는 동기와 과정이 과거에 비해 상당히 달라졌음을 강조한

다. 그는 개인들이 자신의 의미 충족과 표현이 성공적 명예의 추구보다 더 가치 있는 일이라는 생각이 확산되었고, 이것이 이전보다 감성의 중요성이 커지는 결과로 나타났다고 언급한다. 특히, 문화소통의 중심으로 변화되면서 점차적으로 생산에서 문화로 이전되고 있는 현상적 결과라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한다. <표 1>는 삶의 방식이 변화되고 문화적 삶의 의미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비교·제시한 것이다. 과거에 비해 현재는 감성중심이며, 스스로의 표현이 강화되고, 창조적 가치를 지향하며 문화를 사용하고 소비하는 성향이 스스로의 관점으로 표현된다고 볼 수 있다. 즉, 최근의 관점이 더 적극적이고, 더 창조적이고, 더 개인적 수준에서 문화를 얻으려는 욕구가 높아졌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표 1〉 문화의 과거와 현재의 비교

과거문화	현재(디지털)
이성중심	감성중심
자기 절제	자기 표현
남이 창조한 가치에 동조	스스로 가치 창조
억제된 감성	해방된 감성
보고 듣고 구경하는 정적문화 (to-see culture)	직접 참여하여 즐거움을 추구하는 동적문화 (to-do culture)
소유에 대한 욕구	사용가치의 중시
타인 의식적	자기 지향적

자료: 유승호(2005: 16) <표1-1> 수정인용

이렇게 볼 때, 과거에 비해 문화를 얻으려는 욕구(desire) 즉 문화욕구는 상대적으로 매우 높아졌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문화욕구(cultural desire)에 대한 정의는 매우 부족하지만, 문화와 욕구라는 두 단어에 대한 기초적 정의를 통해서 유추해볼 수 있다. 사전적 정의에서 문화는 “자연 상태에서 벗어나 일정한 목적 또는 생활 이상을 실현하고자 사회 구성원에 의하여 습득, 공유, 전달되는 행동 양식이나 생활 양식의 과정 및 그 과정에서 이룩하여 낸 물질적·정신적 소득”을 의미한다. 또한, 욕구는 “무엇을 얻거나 무슨 일을 하고자 바라는 일”이며, 이때 이러한 상태는 심리적 상태를 의미하게 된다. 이러한 두 단어를 합한 ‘문화욕구’는 ‘사회의 행동양식이나 생활양식, 또는 그 결과물을 얻거나 그와 같은 것을 행하고자 하는 바람’으로 정의해볼 수 있다. 짧게 말하면 문화를 향유하고 누리하고자 하는 심리상태인 것이다<sup>1)</sup>.

요컨대, 현대사회에서는 소득의 증진이나 물질적 추구로부터 얻어질 수 있는 삶의 가치는 작아지고 있고, 이에 반해 문화로부터 얻어지는 심리적·사회적 안녕감은 더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과거에 비해 현대사회가 가진 다양한 맥락들 속에서 이러한 변화는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 이에 문화를 소비하고 누리려는 개개인들의 문화욕구를 해소하는 것이 그들 삶의 가치를 높이고, 정체

1) 이러한 문화욕구는 문화향유와 유사하게 사용될 수 있다. 다만, 문화욕구는 보다 본질적인 차원에서 다뤄져야 하는 것으로서 내재화된 과거의 경험으로부터 발생하는 관심, 성향, 선호 등을 포괄하고 있다. 문화향유는 문화를 누리는 것으로 생각해볼 때 더 문화욕구가 문화향유에 비해 더욱 포괄적이다.

성을 강화해주며, 삶의 의미를 부여하는 가장 중요한 디딤돌이 될 수 있다. 그렇지만, 이러한 문화욕구가 개인의 선택과 선호에 의해 발휘되고 있는 상태일지라도 여전히 문화는 자라나면서 얻어지는 체화된 경험, 그리고 접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과 관련된다. 문화욕구가 매우 개인차원의 것일지라도 실제 문화를 향유하고 얻을 수 있는 기회와 기능은 다양한 경험으로부터 배태될 수 있기 때문이다. 배태된 경험과 교육, 그리고 문화자본의 향유에 대해서는 Bourdieu(1986)의 문화자본 관점에서 잘 드러난다. 이하에서는 Bourdieu를 중심으로 한 문화자본과 그것이 문화적 성향이나 문화욕구와 어떻게 관련될 수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 2. 문화자본의 관점과 접근방법: Bourdieu(1986)의 문화자본을 중심으로

Bourdieu(1986)는 '자본의 형태(The Forms of Capital)'라는 논문에서 기존의 경제이론의 획일적인 자본 개념을 비판하면서 자신의 자본 개념을 3가지로 비교적 명확하게 구분 및 설명하고 있다. 즉 계급 구조의 기본이 되는 '경제 자본'과 이를 바탕으로 생성되고 또 일정한 조건하에서 경제 자본으로 전환될 수 있는 '문화 자본' 그리고 '사회 자본'에 근거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Bourdieu, 1986: 242; 최섯별, 2006: 128). 이중에서 '문화자본'의 개념은 그의 이론에서 핵심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Bourdieu에 따르면, 사회는 개인이나 집단들의 무질서한 집합이나 계급들의 위계화되고 정형화된 피라미드라기보다는,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연결된 수많은 장들이 접합된 다차원의 위치공간이다(홍성민, 2004). 그리고 이 장 안에서 개인들은 자신이 점유한 위치, 즉, 계급에 따라 상이한 행동전략을 펼치게 된다. 이때 행위자들의 위치는 그들이 보유한 자본의 총량과 그 총량의 내부구성에 의해 결정된다. 즉, 행위자들의 경제자본과 문화자본의 상대적 비율에 따라 지배적 위치와 피지배적 위치가 결정되는 것이다(강명구 외, 2011: 112).

이러한 Bourdieu의 계급간 문화적 차이는 맑스주의의 계급론과 차이가 있다. 맑스주의 계급론은 경제자본의 소유 여부에 따라 계급을 범주화하는 반면, Bourdieu와 문화자본론은 경제자본과 문화자본의 총합으로 계급을 범주화한다. 따라서 생산수단을 소유한 자본가들도 지배계급으로 분류되지만, 생산수단을 소유하지 않았더라도 고급예술의 가치를 평가하고 즐길 수 있는 능력을 지닌 사람은 지배계급으로 분류된다. 하지만 동일 계급에 소속되어 있더라도 자본의 구성, 즉 경제자본과 문화자본의 상대적 보유 수준에 따라 계급 내적으로 이질성을 보이며 아비투스(habitus)의 내용도 서로 다르다. 소비행위를 예로 들면, 상대적으로 경제자본을 많이 보유한 기업가 혹은 재산가 같은 지배계급 구성원들은 소비대상의 교환가치를 중시하며 소비행위를 통해 물질적 역량을 과시하고자 하는 반면, 상대적으로 문화자본을 많이 보유한 전문직 종사자들 같은 지배계급 구성원들은 소비대상의 미학적·상징적 가치를 중시하며 소비행위를 통해 자신의 정체성을 형성하고 표현하고자 하는 등 상이한 성향을 보여준다. 문화자본 보유 여부 혹은 경제자본과 문화자본의 상대적 수준에 따라 문화적 차이가 존재하고 있음은 경험적 연구들(Rupp, 1997; Holt, 1998; Tomlinson, 2003)에서 입증되고 있다(조돈문, 2005:6).

Bourdieu의 문화자본은 획득한 경로에 따라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상속자본과, 자신이 성취한

획득자본으로 나눌 수 있다(장미혜, 2002). 여기서 상속자본이 가족의 계급적 배경과 관계가 있는 것으로서 사회화의 과정에서 습득되어 오래 지속되어 온 성향 즉, 아비투스(habitus)의 차원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획득자본은 공식적인 교육과 훈련을 통해 획득한 자격을 의미한다. 이러한 구분이 획득경로에 따른 구분이라면, 문화자본의 존재형태에 따라서 다음과 같은 다른 방식의 구분도 가능해진다. 문화자본은 다시 세 가지로 구분된다(강명구 외, 2011: 113). 첫째, '외적인 부(경제적 자본)'가 낀 사회화 과정을 통하여 '아비투스(habitus)'의 형태로 취향이나 태도 등과 같은 개인의 내적인 한 부분으로 자리 잡은 '체화된 상태(embodied state)'이다. 둘째, 이러한 체화된 문화자본이 없으면 향유하기 어려운 문학, 예술 작품 같은 '객체화된 상태(objectified state)'이다. 셋째, 학위처럼 체화된 문화자본이 사회적 정당성을 획득하여 객관적인 것으로 변화된 '제도화된 상태(institutionalized state)'이다(Bourdieu, 1986; 최셋별, 2006: 128).

Bourdieu에 따르면, 개인들은 무엇이 좋고, 무엇이 아름답고, 무엇이 정당한 것인가에 대한 의견을 갖고 있고, 사회세계와 일상적 현상들을 경험·인지·해석하는 준거기준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성향(dispositions)의 체계를 아비투스(habitus)라 부르며, 아비투스는 개인 수준을 넘어서 집합적 수준에서 형성된 사회적 구성물로서 존재한다(조돈문, 2005: 4). 아비투스는 개인의 일정한 행동 속에서 내면화되고 육화된 성향체계를 지칭하는 것으로서, 사회공간 속에서 우리가 차지하는 위치 및 그와 관련된 삶의 방식, 그리고 Bourdieu가 '기질'이라고 부른 문화적 취향 및 느끼고 사고하는 방식 등을 포괄하는 개념이다(Fiske, 1992: 190). Bourdieu에 따르면, 이러한 내면화는 특정 맥락에서 습득된 행동과 가치들을 이 자명한 것, 자연스러운 것으로 여기도록 만듦으로써 '사회화'의 핵심적인 메커니즘을 구성하는 역할을 하게 되며, 개인들로 하여금 사회구조를 재생산하는데 기여하게 만든다(Bonnewitz, 1997; 강명구 외, 2011: 99). 즉 아비투스의 내면화는 개인이 가족들 사이에서 양육되고, 비슷한 가정배경을 지닌 또래들과 접촉하고,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으며, 직장에서 직무를 수행하며 사회화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다. 따라서 사회적 구성물인 아비투스의 존재로 인하여 개인들은 사회적 위치에 따라 서로 다른 취향과 가치관을 지니게 되고 그 결과 소비행위와 생활양식 등 문화에 있어서 서로 차별성을 보이게 되는 것이다(조돈문, 2005: 4). 따라서 유소년기, 청소년기의 문화예술교육은 문화동호회, 예술참여활동 등과 같은 제도화된 문화생활에 참여하고, 나아가 문화욕구에 영향을 미치게 될 수 있다는 것이다.

Bourdieu의 문화자본과 관련된 주장을 검증하기 위해 국외뿐 아니라 국내에서도 다수의 실증연구가 수행되어왔다. 하지만 이호영 외(2011)는 한국 사회의 문화 소비를 결정짓는 중요한 변수들이 가지는 특수성에 대한 고려가 부족했음을 지적한다. 서구의 문화 재생산 이론가들은 고급문화에 대한 성향(disposition)이 학교의 공식적인 교과 과정을 통해 자연스럽게 몸에 배게 된다고 말하고 있으나, 우리 사회에서는 오히려 사교육과 사적 체험을 통한 문화자본의 축적이 보다 일반적이라는 것이다. 즉, 학교 밖에서의 문화예술 교육은 한국 사회에서 문화자본의 불평등한 분배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열쇠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현재 시점에서 같은 경제적 지위를 가진 집단 내에 서로 다른 문화 선호 체계가 빈번히 나타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가정이 성립될 수 있다. 이때 문화예술 교육은 한편으로 부모의 자녀에 대한 장기적 경제자본 투자의 일

환으로, 다른 한편으로 다른 가정의 아이들과 구별되는 배타적 우위를 점하기 위한 경쟁적 행위의 일부로 간주될 수 있다(이호영 외, 2011: 94).

Bourdieu(1964)가 초기 저작에서 직접적으로 무형의 문화 자본의 '상속(heritance)' 문제를 다루었음에도 불구하고 문화예술 교육 그 자체는 문화적 재생산을 둘러싼 사회학적 논쟁에서 별로 관심을 받지 않은 분야다. 이는 어쩌면 지배 계급이 선호하는 문화예술이 공식적인 교육과정 내에서 무의식적으로 전수된다는 Bourdieu의 주장이 서구 사회에서 별다른 비판을 받지 않고 널리 받아들여졌기 때문일 수 있다. 하지만 공식적인 교육 과정의 내용 자체가 서구 학문의 수입을 통해 형성되었고 문화 자본이라고 인정되는 대상들 역시 급속히 서구화된 역사를 가지고 있는 한국에서 문제는 그리 간단하지 않다. 특히 현재 장년 이상의 사회 집단에서는 교육 기회 자체가 매우 희소했고 이후 세대 역시 부모로부터 물려받을 수 있는 문화 자본이 극히 제한적이었기 때문에 이를 사교육이라는 형식을 통해서 보충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동네의 피아노 교습학원, 미술학원, 무용학원으로부터 백화점 문화센터나 구민회관의 문화 강좌에 이르기까지 방과 후나 졸업 후의 문화 자본 습득에 대한 요구는 중산층 이상의 계층에서 널리 확산되었는데(이호영 외, 2011: 92), 이러한 배경적 차이로 문화습득의 경험치는 개개인에 따라 상당히 다른 형태 및 축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

〈표 2〉 문화자본의 개념 및 내용

연구자	정의
Dimaggio (1982)	사회적으로 추구하고 소유할 만한 상징 부의 점유 정도를 가능하는 도구
Bourdieu(1984)	계급적 지위의 지표로서 비공식적 학위기준이자 계급의 속성이며 사회선택(social selection)의 기준
DiMaggio & Mohr(1985)	위세적(prestigious) 문화자원에 대한 관심과 경험
Robinson & Garmier(1985)	책 구입, 박물관, 극장, 공연관람, 언어습관, 말씨, 대인관계기술과 같은 언어적·문화적 능력
De Graff, P (1986)	공식문화와 예술(고전음악, 연극, 그림, 조각, 문학)에 대한 가치를 통한 적절한 매너로 좋은 취향
Katsills & Rubinson(1990)	상류층 문화자산, 행동, 습관, 태도
Mohr & DiMaggio(1995)	위세적 취향, 대상, 문화적 권위체에 의해 타당성을 입증 받은 스타일·사회적 가치 표준의 지속과 해체, 집단적으로 유지, 문화유행의 정기적 변화
Aschaffenburg & Mass(1996)	정당하게 제도화된 것으로서 지배문화 코드, 실천, 언어양식, 미적선호, 상호작용 양식
Kalmijin & Kraaykamp(1996)	태도, 행동, 선호, 자격과 같은 고급지위문화 표시, 일상적인 사회문화적 배제와 포섭을 위해 사용
Eitle & Eitle (2002)	태도, 행동, 선호, 자격과 같은 상층 문화표시, 일상적인 사회문화적 배제와 포섭을 위해 사용

자료: 서순복(2010: 149) 수정인용

Bourdieu(1984)와 Dimaggio(1982) 이후 많은 연구들을 통해 문화자본은 다루어져왔다. 그렇지만, 이들의 내용에서 공통적으로 부각되는 것은 위세적 또는 상류층에 대한 초점이었다. 본 연구

는 이러한 개념들 중에서 특히 공식화 또는 제도화된 사회양식에 초점을 둔다. 유소년기의 교육을 통한 문화적 소양의 증대는 향후 다양한 문화제도를 활용하는데 기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문화예술교육이 갖는 초기경험이 성인이 된 이후의 다양한 경험들의 기초가 될 수 있으며, 동시에 문화욕구를 강화하는 중요한 인자임을 밝혀보고자 한다. 특히, 유소년기의 문화예술교육은 문화자본의 체화된 상태로써 체화된 경험으로 간주된다. 여기서 체화된 경험은 개인의 의식 및 무의식 속에서 잠재되어 있는 인자로써 매순간 발현되지는 않지만, 관련된 지식이나 상황에서는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된다. 나아가, 성년이 된 이후의 문화와 관련된 다양한 제도들은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기초가 된다. 이때의 다양한 제도들을 통해 겪게 되는 경험은 문화욕구를 높이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이렇게 본 연구는 초기경험으로써 '체화된 경험'이 문화제도들의 이용가능성을 높이는 경험강화로써 '제도화된 경험'으로 이어지고, 이것이 중국에 문화욕구를 높이는 관계를 규명해보고자 한다.

### 3. 문화자본과 사회적 계층

Bourdieu(1986)의 연구는 소득, 교육, 연령, 성별 등의 사회 내 다양한 차이를 고려하게 하였다. 생활수준이 향상되고 소비재가 다양화되면서 상품소비에 있어서 사용가치 못지않게 상징가치가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되었다(조도문, 2005: 3-4). 소비행위는 개인의 기본욕구 해소를 넘어 개인의 정체성 표현으로 변화한 것이다. 소비유형과 생활양식은 상징의 소비와 소비를 통한 정체성 형성으로 나타나고, 복잡한 사회양식 만큼 다양한 집단을 통한 일상적 생활은 정체성의 불안전성과 변화를 동반하게 되었다. 마치 문화적 차별보다는 다양화가 일상적으로 부여된 것처럼 보여졌다. 분명한 점은 문화자본은 계층에 따라 향유정도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이다. 선진국들에서 나타나는 문화자본 향유의 다양한 양상이 존재한다고 선행연구들은 주장하기도 한다(백병부 외, 2007: 114). 이러한 선상에서 소득, 직업, 학력 등은 중요한 고려대상이 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구별짓기'(Bourdieu, 1986)의 문화적 소비성향은 여전히 나타나고 있다고 언급하기도 한다(장미혜, 2002; 조광익 외, 2010; 최은용, 2014). 경제적 차이로 대변되는 소득의 격차는 이러한 차이를 잘 드러내는 것 중 한 가지이다. 소위 '명품'의 소비 증대는 더 높은 소득수준과 격차를 드러내기 위한 구별짓기의 한 형태가 된다. 이는 소득의 차이가 다른 모든 생활패턴을 결정한다는 관점에 기인한다. 경제자본이 있어야 문화자본이 획득될 수 있다는 것이다. 어쩌면 유소년기 시기에 문화체험을 한 것은 부모의 경제자본과 무관하지 않을지도 모른다. 가구의 경제적 차이 즉 사적인 경제자본의 수준에 따라 유소년기의 문화체험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은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다.

교육은 오랫동안 문화자본을 부각시키는 변인이었다. 교육사회학에서는 부모의 교육수준이나 소득수준에 따른 자녀의 학업성취도의 차이를 규명하는 것이었다. 미국을 대상으로 연구한 Stevenson & Wolfers(2008: 536-538)에 의하면 소득불평등은 1972년 이후로 증가하였고, 특히 높은 대학학비가 불평등을 높였다는 것이다. 이러한 교육 및 학력차이가 1990년대 및 2000년대 초에



이러려 불평등의 상승을(Goldin and Katz, 2007) 촉발했다고 바라본다(서인석 외, 2016). 이러한 관점에서 공교육을 통한 유소년기문화예술교육은 문화의 격차를 완화시킬 수 있는 중요한 도구가 될 수 있다고 믿어왔다. 교육의 차이는 여전히 문화를 영유하는 데 있어 중요한 차이를 나타내는 지표로 간주된다.

사회문화적 배경 및 부모의 교육수준과 관련성이 있다는 연구들을 통해 성별의 격차가 부각되어왔다. 남성중심의 사회인지 또는 그렇지 않은지 등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문화자본이 성적에 미치는 영향이 여성의 경우가 더 높았다는 실증연구(DiMaggio, 1982)는 이를 뒷받침하였다. 나아가, 여성의 경우 문화자본과 함께 아버지의 학력이 계층이동에 있어 더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는(DiMaggio & Mohr, 1985) 연구 역시 성별에 따라 차이가 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한국사회에서 여성의 사회진출이 확대되고 활동영역이 넓어진 것이 사실이지만, 성별에 따른 문화자본의 차이가 나타날 수 있다는 관점은 여전히 검증해봐야 할 부분이다. 연령 역시 역시 어릴수록 다양한 문화활동에 참여한다는 실증연구(Vander Stichele & Laermans, 2006), 연령이 증가할수록 좋아하는 음악 장르의 수가 감소한다는 연구는(한준 외, 2007) 연령에 따른 문화자본의 향유가 달라질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이는 연령 역시 문화 취향을 구분짓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는 것이다.

요컨대, 다양한 인구학적 특성들 역시 문화 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기에 이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즉 소득, 교육, 연령, 성별은 때로는 문화자본에서 부분적으로 중요하게 고려되는 변인일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인구학적 특성으로써 문화자본 연구에서 함께 고려되어야한다. 본 연구에서도 이를 고려하여 연구를 수행하고자 하였다.

#### 4. 선행연구 검토

부르디외가 제시한 문화자본과 관련하여 국내에서도 다양한 측면에서의 연구들이 수행되어왔다. 우선 부르디외가 제시한 문화자본을 한국적 맥락에 적용 및 검증하기 위한 연구(최셋별, 2006; 강명구 외, 2011; 최셋별 외, 2012; 2013)가 수행되었다. 최셋별(2006)은 한국 사회의 역사적이고 사회적인 특수성을 근거로 문화 자본의 존재를 부정하는 논의에 대해, 한국 사회의 보다 심층적인 구조와 재생산 메커니즘을 찾아내기 위해서는 한국 사회의 문화 자본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가 필수적이라는 반론을 제기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우선 미국 문화사회학에서의 Bourdieu 문화자본론 관련 연구들을 한국사회 연구에 있어서의 함의점이라는 측면에서 문화 자본론의 적용성, 문화자본과 계급의 상응성, 그리고 문화 자본의 생성과 제도화라는 세 주제를 중심으로 정리하였다. 다음으로 그간 한국 사회에서 진행되어온 문화자본에 대한 연구들을 이 세 주제의 맥락에서 개괄하고 보다 활발하고 풍부한 문화 자본 논의와 경험적 연구를 위해 세 가지 방안을 제안하였다.<sup>2)</sup>

2) 연구자가 제안한 세 가지 방안은 다음과 같다(최셋별, 2006: 123). 첫 번째, 문화 자본을 좀 더 광범위하고 적응성 있는 개념으로 재개념화하고 좀 더 폭넓은 시각에서 문화 자본론을 해석함으로써 한국사회에서

강명구 외(2011)는 Bourdieu의 이론을 사례로 하여 외국이론을 한국 사회현실에 수용할 때 우리가 어떠한 전략을 취할 수 있는가에 관하여 고찰하였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이론적 문제의식을 한국현실의 맥락으로부터 도출하는 맥락화 혹은 생성연구의 비중이 극히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문화자본론의 이론적 틀을 적용한 각 논문들의 결론도 부분적으로 상반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한국사회에서 문화자본의 성격이나 그 작용양상, 그리고 계급 형성의 역사적 궤적과 같은 구체적인 사회맥락이 Bourdieu의 이론이 태동한 서구사회와 다르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론과 현실 간의 괴리가 여전히 중요한 과제상황이라는 것을 여실히 드러냄을 지적하였다. 그는 이러한 한계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방법으로, 외국 이론이나 개념을 '방법론적 도구'로 활용하는 전략과 '맥락의존적 개념의 생성' 전략을 제안하였다.

최셋별 외(2012)는 대규모 조사 자료에 근거한 한국 사회의 문화자본 지형도를 구성하기 위한 기초 연구의 일환으로, 다른 국가들에서 집적된 기존 자료와의 비교가 가능하면서도 동시에 현재 한국 사회에 적합한 질문 문항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연구를 통해, 문화예술 활동과 음악장르를 주요 영역으로 선정하고 문화의 '고급/대중' 차원과 '소비/생산' 차원, 그리고 한국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구체적인 항목을 구성하였다. 그리고 이렇게 구성된 각 항목들에 대해서는 그 동안 문화자본의 보유 정도를 측정함에 있어 기존의 연구들에서 일관성 없이 사용된 문화자본 측정의 세 가지 측면(선호, 참여, 인지)을 통합 보완하여, 각 항목을 좋아하는 정도(선호), 각 항목에 참여하는 정도(참여), 그리고 각 항목이 고급스럽다고 생각하는 정도(인지)와 각 항목이 멋있다고 생각하는 정도(인지)를 묻는 질문 문항을 개발하였다.

최셋별 외(2013)는 문화자본의 양적연구의 방법론적 도구를 제공하기 위해 한국 사회에 적합한 문화자본 지수를 구성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Bourdieu의 이론에 근거해 개발되었고, 이후 많은 후속 연구들에 의해 지속적으로 사용되어져 온 디마지오의 문화자본 지수 체계를 중심으로, 현대 한국 사회에 적합하게 수정·보완한 문화자본 지표를 개발하였다. 그리고 이를 전국규모의 조사인 '2011년 문화자본에 대한 인식 및 실태조사' 자료에 적용하여 문화자본 지수를 구성하였다. 문화자본 지수는 클래식 음악, 미술, 문학이라는 세 가지 고급예술장르에 대한 태도, 활동, 정보 점수로 구성 되었으며, 지수의 모형 적합도, 타당도와 신뢰도는 확인요인분석과 분산분석을 통해 확인하였다. 문화자본 지수는 모형 적합도가 높을 뿐만 아니라 주요 사회경제적 변수와 유의미한 관련성을 보여주었다.

다음으로 문화자본과 문화생활의 관계를 규명하고자 하는 연구(이호영 외, 2006; 2008; 2010; 조광익 외, 2010; 최은용, 2014)가 다수 수행되었다. 이호영 외(2006)는 오프라인에서의 문화자본이 정보불평등에 끼친 영향을 이해하고 이의사회정책적 함의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오프라인에서 나타나는 문화자본과 취향이 인터넷활용에 일정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정보 불평등이 기존의 직업, 연령, 성별 사회경제적 변인에 따른 집단적 불평등

---

작용하고 있는 문화 자본의 형태와 그 작동 방식을 밝혀내는 연구들이 필요하다. 둘째, 문화 자본의 실증적 연구를 보다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문화 활동 및 취향 전반에 관한 광범위한 실태 파악과 지속적인 조사 자료의 집적이 중요하다. 셋째, 서구의 고급문화, 대중문화, 그리고 생활양식들이 어떻게 한국 사회에 스며들어 제도화되어왔는가에 대한 사회사적인 시각을 가진 연구가 체계적으로 수행되어야 한다.

(categorical inequalities)이나 경제구조로부터 유래한 측면 이외에 문화취향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음을 제시하였다. 이 후, 이호영 외(2008)는 영화에 대한 선호에 문화자본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 Bourdieu가 주장했던 상층계급의 고급문화 선호, 그리고 하층계급의 대중문화 선호라는, 사회계층과 문화 취향의 동형성(homology) 가설이 영화 영역에서도 경험적으로 입증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대개의 경우 사람들은 문화자본의 양이 많아질수록 영화 장르에 대한 관용적 성향을 보이지만 고급문화 관람 경험이 많은 사람들의 경우에는 특정 영화 장르에 대해 배타적 태도를 취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이는 동형성 가설과 대립하는 것으로 이해되어 온 문화취향의 다양성-편협성 가설이 오히려 동형성 가설을 보완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져야 함을 시사한다.

또한 이호영 외(2010)는 인터넷이 문화민주주의에 기여하는가, 그렇지 않으면 인터넷의 도입은 오히려 문화불평등과 문화적 갈등을 유발하는가에 대한 문제의식을 갖고 연구를 수행하였다. 이를 위해 오프라인에서 이미 체화된 문화자본이 온라인에서의 문화활동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을 검증해보고자 했다. 분석결과, 오프라인에서의 여가 활동이 적극적인 집단일수록 또 비용이 많이 드는 문화생활을 더 자주 영위할수록 온라인 문화활동에 대한 주관적인 문화적 효능감이 높았으며 나아가 한국 사회의 문화 발전에 인터넷이 미치는 영향에도 높은 점수를 주는 경향이 발견되었다. 따라서 인터넷이 문화적 불평등 문제를 해소할 것이라고 낙관하는 것은 너무 성급하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조광익 외(2010)는 사회계층, 경제자본, 문화자본과 그 외 개인의 사회적 위치와 특성을 나타낼 수 있는 요인들이 스포츠 활동과 어떠한 상관성을 가지고 있으며, 또한 이론적 논의에서 고찰되었던 여러가지 현상들과 관계들이 우리 사회에서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를 설명하고자 하였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계급, 문화자본, 경제자본 등은 스포츠 활동의 계층화에 어느 정도 상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론적 고찰을 통해 논의되고 있는 세 현상들을 현실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최은용(2014)은 상속된 문화자본과 개인의 문화향유태도가 어떠한 관계가 형성되는지를 구조적으로 규명하고자 하였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개인의 상속된 문화자본은 긍정적인 문화예술감성과 문화향유를 증대시켜 주었다. 또한 개인의 긍정적인 문화예술감성은 문화향유를 증대시켜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문화자본과 교육성과와 관련된 연구(장미혜, 2002; 백병부 외, 2007), 문화자본과 계급과의 관계에 대한 연구(조돈문, 2005; 송한나 외, 2013), 문화예산 및 문화소비와 관련된 연구(김석태 외, 2003; 남은영, 2010)도 수행되어왔다.

장미혜(2002)는 부모의 사회적 계급과 자녀의 교육적 성취사이의 관계를 중재시켜주는 문화자본의 역할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2001년도에 775 사례를 대상으로 수집된 자료를 토대로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부모의 문화자본은 계급이나 성, 거주지, 교육년수와 같은 다른 요인들을 통제한 뒤에도 대학생들의 수학능력 시험성적에 유의미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학생을 선발하는 사회적 과정에서 개개인의 능력과 노력이 주요한 기제이기는 하지만, 한국사회에서도 교육을 통해서 사회적 위계관계가 문화적으로 재생산되고 있음을 제시하였다. 백

병부 외(2007)는 한국 사회에서 사회자본과 문화자본의 존재양상을 밝히고, 경제자본, 사회자본, 그리고 문화자본이 수능 및 내신 성적과 어떤 구조적 관계를 갖는지를 구명하고자 수행되었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먼저 가정의 문화자본 및 사회자본 보유 양상은 가계소득, 학력, 직업에 따라 차이가 있었지만, 학생 문화자본의 경우에는 이러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 다음으로 수능 및 내신 성적과 경제자본, 사회자본, 문화자본과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수능 성적이 내신 성적에 비해 경제자본의 영향을 더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수능 성적과 내신 성적 모두에 대해 학생 문화자본과 사회자본이 상대적으로 큰 효과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가정과 학교에서 사회자본 및 학생 문화자본을 확충하려는 노력을 통해 사회경제적 배경에 따른 학업성취의 격차가 일정 부분 완화될 수 있는 가능성을 시사하였다.

조돈문(2005)은 계급과 문화의 관련성을 중심으로 부각된 주요한 이론적 쟁점은 세 가지, 즉 “계급들 사이에 문화적 차별성이 존재하는가? 문화자본은 경제자본과 함께 계급현상에 대해 높은 설명력을 지니는가? 노동계급 내 문화적 차별성은 노동계급 계급형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하여 검증하고자 하였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첫째, 계급들은 경제자본의 문화자본 전환 가능성에서 차이가 있는 부유문화와 취약문화의 양 측면 모두에서 문화적 차별성을 보이고 있다. 둘째, 경제자본과 문화자본의 상대적 설명력에 있어, 경제자본이 문화자본에 비해 전반적으로 높은 설명력을 보이고 있으며, 경제자본의 설명력이 문화현상과 계급현상 및 사회정치의식 일반에 걸쳐 높은 설명력을 보이는 반면, 문화자본의 설명력은 문화현상과 계급정체감 등에 한정되어 있었다. 셋째, 노동계급 내 문화적 차별성은 아직 문화적 분절로 발전하지는 않았으나, 숙련수준, 성별, 세대 등에 따른 분절들은 서로 문화적 차별성을 보이고 있어 사회적 거리를 확대하여 분절간 경계를 경직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계급형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이 확인되었다. 송한나 외(2013)는 한국 사회에서의 객관적 계급위치와 주관적 계층의식간의 상응정도를 살펴보고, 이 두 요소간의 격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다차원적으로 분석하고자 하였다. 분석결과, 경제자본(월평균 가구소득), 문화자본(아버지 교육수준, 문화소양, 문화예술교육경험), 사회자본(가족, 친척, 인척의 사회적 연결망)이 많을수록 본인의 계급위치보다 응답자 본인의 계층적 위치를 높게 인식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즉 구체적인 수치로 나타나는 경제자본뿐만 아니라 불평등한 계급, 계층을 비가시적으로 재생산하는 기제로 작용하는 문화자본과 사회자본이 계층의식을 결정짓는 강력한 요인으로 작용함을 발견하였다.

김석태 외(2003)는 정부의 문화예술에 재정지원의 효과성 여부를 규명하고자 한국문화정책개발원에서 발표한 ‘2002년 국민문화지수’를 이용하여 16개 지자체의 문화예산이 그들 지역의 문화지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지자체의 문화예산이 지자체 시·도민의 문화수준 향상에 미치는 영향은 문화수준 지표나 예산수준에 따라 긍정적인 관계뿐만 아니라 다른 경우도 나타나고 있었다. 이에 따라 일방적인 문화예산 지원보다 그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을 주장하였다. 남은영(2010)은 중산층의 소비문화를 문화예술소비와 물질소비로 구분하고 중산층범주와 계급범주를 활용하여 집단별 특성을 살펴보고, 문화자본과 사회자본의 효과를 중심으로 문화예술소비와 물질소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도 함께 고찰하였다. 연구를 통해,

성장기 문화자본, 문화예술소비 및 지위소비성향 등은 중산층의 특성을 나타내는 지위표시물(status marker)이며 중산층의 소비문화가 문화자본과 사회자본의 소유를 둘러싸고 가시적으로 드러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처럼 각각의 연구들은 문화자본과 관련해서 이론 가설들을 검증해왔으며, 경험적으로 확인해왔다. 다만, 체화된 경험(체화된 상태) 및 제도화된 경험(제도화된 상태)은 시간의 차이와 연구방법론적 고민으로 인해 인과관계에 대한 가설검증에 대해 어려움이 있었다. 즉, 상호간 이론가설적 인과관계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를 동시에 고려한 연구가 필요하나 아직까지 이에 관한 연구는 수행되지 않았다. 본 연구는 이를 구조적 관계로 논의함으로써 체화된 경험이 현재의 다른 경험과 제도화된 수용에 영향을 주고 이것이 문화를 소비하려는 욕구로 귀결된다는 기존 연구가 진행하지 못한 경험적 검증을 시도해보고자 한다.

### Ⅲ. 연구설계

#### 1. 연구모형 및 가설

체화된 상태는 문화에 대한 자각이나 욕구를 증진시킨다(Bourdieu, 1986). 이는 긴 사회화 과정을 통해 내재화된 체화된 상태가 개인이 가진 경험·인지·해석하는 기준 또는 성향을 결정하고, 이것이 자신이 차지하는 위치 및 그와 관련된 삶의 방식, 문화적 취향 및 느끼고 사고하는 방식(Fiske, 1992: 190) 제시한다. 즉, 이러한 내면화는 특정 맥락에서 습득된 행동과 가치들을 이 자명한 것, 자연스러운 것으로 여기도록 만든다. 나아가, 이러한 자연스러움이 관련된 취향을 얻으려 하고, 행동을 실행하게 한다. 이처럼 정체성이 확립되기 이전인 유소년기의 문화에 대한 경험 즉 문화예술교육과 같은 부모로부터의 상속자본은 문화욕구에 영향을 미치게 될 수 있다는 것이다.

H1: 유소년기 문화예술교육은 문화욕구에 정(+)의 영향을 줄 것이다.

한편, 유소년기의 문화예술교육은 상속된 문화자본으로 바라본다면 성인이 된 이후 자신이 선택하는 문화를 향유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과 방식은 성취한 획득자본으로 바라볼 수 있다. 즉 전자가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상속자본인데 반해(장미혜, 2002), 후자는 자신의 노력에 의해 얻어진 것으로 이것이 획득자본인 것이다. 여기서 상속자본이 가족의 계급적 배경과 관계가 있는 것으로서 사회화의 과정에서 습득되어 오래 지속되어 온 성향 즉, 아비투스<sup>1)</sup>의 차원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획득자본은 공식적인 교육과 훈련을 통해 획득한 자격을 의미한다. 그런데, 이와 같은 획득자본의 이면에도 상속자본의 영향이 존재할 수 있다. 유소년기의 경험과 그로 인한 정체성의 확립은 문화와 관련된 다양한 방식들에 대한 호기심과 선호를 반영할 수 있으며, 이것이 심리적인 접근성을 높인다. 특히, 공식적·비공식적 '제도(institution)'는 심리적 접근성과 선호가 없이는 이용하기

가 쉽지 않다. 따라서, 유소년기 문화예술교육은 성인이 된 이후 문화관련 ‘제도’를 이용하는데 영향을 줄 수 있다<sup>3)</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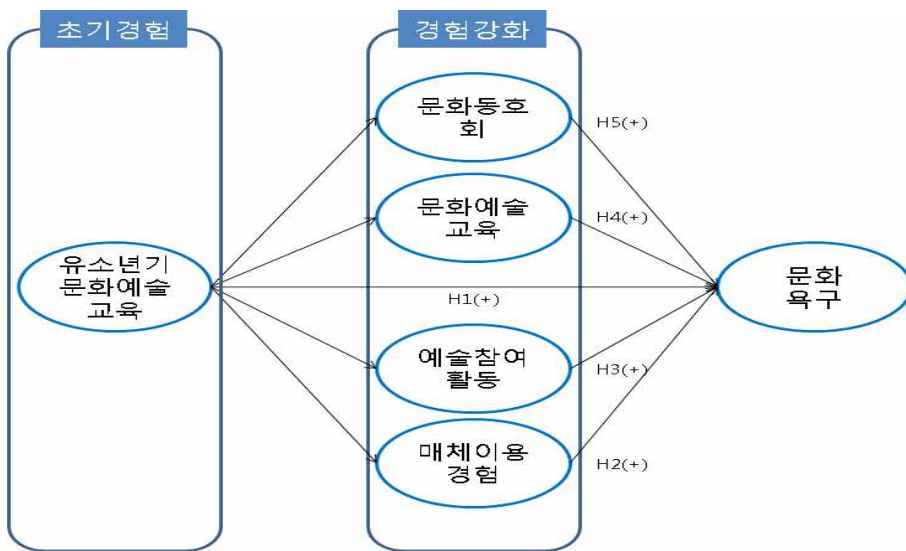
H2: 매체이용경험은 유소년기 문화예술교육과 문화욕구의 관계에 있어 정(+)의 매개효과를 지닐 것이다.

H3: 예술참여활동경험은 유소년기 문화예술교육과 문화욕구의 관계에 있어 정(+)의 매개효과를 지닐 것이다.

H4: 문화예술교육경험은 유소년기 문화예술교육과 문화욕구의 관계에 있어 정(+)의 매개효과를 지닐 것이다.

H5: 문화동호회경험은 유소년기 문화예술교육과 문화욕구의 관계에 있어 정(+)의 매개효과를 지닐 것이다.

〈그림 1〉 연구모형



아울러, ‘제도’화된 경험은 문화에 대한 관심과 정보를 더 강화시킴으로써 문화적 삶에 대한 의욕과 관심을 높이고, 이러한 관심은 문화욕구를 강화시키게 된다. 따라서, ‘제도’로 간주된 매체이용, 예술참여활동, 문화예술교육, 문화동호회 참여는 궁극적으로 문화욕구 자체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또한, 이러한 ‘제도’는 장기적으로 초기경험인 유소년기 문화예술교육의 매개변인으로 기능하게 된다. 〈그림 1〉은 이상의 논의들을 토대로 구성한 연구모형이다. 유소년기 문화예술교육은 독립변인으로서 초기경험 및 체화된 상태로 자리하게 되며, 문화동호회, 문화예술교육, 예술참여활동, 매체이용은 수료증, 자격증 등의 결과물을 통해 제도화된 상태 또는 제도로써 경험강화를 가져오게 되고, 이것이 문화욕구를 높이게 되는 것이다. 이상의 모든 경로 관계는 (+)의 관계를 형성하게 되며, 각 변인들은 측정단계에서 구체화된 변수로서의 논의가 필요하다. 이에 측정변수에 대한 논의를 이하에서 다룬다.

3) 문화관련 공식적·비공식적 제도는 더 다양한 것들이 있을 수 있지만, 가장 많이 고려되고 있는 것들은 매체이용, 예술참여활동, 문화예술교육, 문화동호회 활동 등으로 정부정책으로 초점이 되고 있다.

## 2. 측정변수의 조작적 정의

우선, 종속변인으로서 문화욕구에 대한 조작적 정의는 다음과 같다. 이론적 검토에서 논의했던 바와 같이 문화욕구는 '사회의 행동양식이나 생활양식, 또는 그 결과물을 얻거나 그와 같은 것을 행하고자 하는 바람'으로 정의해볼 수 있으며, 가장 협소하게 문화를 향유하고 누리하고자 하는 심리상태인 것으로 논의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정의에 기초하여 문화를 향유하려는 심리상태 중 문화예술을 관람하려는 '관람의향'으로 조작적으로 정의내리고 사용하고자 하였다. 물론, 관람의향은 문화욕구의 부분에 해당할 수 있지만, 다양한 문화활동을 관람하고자 하는 욕구가 문화욕구를 잘 드러낸다고 판단하였다. 이때의 관람대상은 연극, 뮤지컬, 영화, 대중음악으로 선정하였다.

다음으로, 독립변인인 체화된 상태로서 유소년기 문화예술경험은 두 가지로 구분하여 측정하였다. 한 가지는 유아동기 문화예술교육경험에 대한 것이고, 다른 한 가지는 청소년기 문화예술교육 경험에 대한 것이다. 유아동기 및 청소년기의 두 질문에 기초해서 본 연구에서는 유소년기 경험이라고 논의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유소년기 경험은 획득된 것이라기 보다는 상속된 것이라고 바라보는 것이다. 앞서 논의했던 바처럼 유소년기의 경험은 체화되어 정체성 확립과 선호 등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표 3〉 개념 및 측정도구

개념	변수명	측정도구	측정
문화욕구	q2_1_5	Q2_1_5. 관람의향 - (연극) 관람 의향	없다: '0' 있다: '1'
	q2_1_6	Q2_1_6. 관람의향 - (뮤지컬) 관람 의향	
	q2_1_8	Q2_1_8. 관람의향 - (영화) 관람 의향	
	q2_1_9	Q2_1_9. 관람의향 - (대중음악) 관람 의향	
유소년기 문화예술경험	q8	Q8. 문화예술교육경험 - 유아동기 교육경험	
	q9	Q9. 문화예술교육경험 - 청소년기 교육경험	
매체이용경험	q4_1_5a	Q4_1_5.a. 매체이용 - (연극) 텔레비전, 라디오 이용 경험	
	q4_1_6a	Q4_1_6.a. 매체이용 - (뮤지컬) 텔레비전, 라디오 이용 경험	
	q4_1_8a	Q4_1_8.a. 매체이용 - (영화) 텔레비전, 라디오 이용 경험	
	q4_1_9a	Q4_1_9.a. 매체이용 - (대중음악) 텔레비전, 라디오 이용 경험	
예술참여활동	q5_1_5	Q5_1_5. 예술참여활동 - (연극) 참여여부	
	q5_1_6	Q5_1_6. 예술참여활동 - (뮤지컬) 참여여부	
	q5_1_8	Q5_1_8. 예술참여활동 - (영화) 참여여부	
	q5_1_9	Q5_1_9. 예술참여활동 - (대중음악) 참여여부	
문화예술교육 경험	q10_6a	Q10_6_1. 문화예술교육경험(1년내) - (연극) 1년 내 경험 여부	
	q10_7a	Q10_7_1. 문화예술교육경험(1년내) - (뮤지컬) 1년 내 경험 여부	
	q10_8a	Q10_8_1. 문화예술교육경험(1년내) - (영화) 1년 내 경험 여부	
	q10_9a	Q10_9_1. 문화예술교육경험(1년내) - (대중음악) 1년 내 경험 여부	
문화동호회	q15_6a	Q15_6_1. 문화동호회 - (연극) 참여경험	
	q15_7a	Q15_7_1. 문화동호회 - (뮤지컬) 참여경험	
	q15_8a	Q15_8_1. 문화동호회 - (영화) 참여경험	
	q15_9a	Q15_9_1. 문화동호회 - (대중가요) 참여경험	

마지막으로, 매개변인으로서 매체이용, 예술참여활동, 문화예술교육경험, 문화동호회 참여여부를 고려하였다. 매체이용은 TV, 라디오 이용경험을, 예술참여활동은 참여여부를, 문화예술교육경험은 1년내 교육경험을, 문화동호회는 참여경험을 각각 측정도구로 선정하였다. 이때 모든 변수는 연극, 뮤지컬, 영화, 대중음악 각각에 대한 질의응답으로 구성하고자 하였다.

### 3. 분석의 방법 및 자료

본 연구는 독립변수로 간주되는 ‘유소년기 문화예술경험’, 매개변수로 간주되는 ‘매체이용경험’, ‘예술참여활동’, ‘문화예술교육경험’, ‘문화동호회 참여’, 종속변수로 간주되는 ‘문화욕구’의 경로관계를 구성하고 있다. 또한, 각 변수들은 몇 개의 측정문항을 포함하고 있는 요인의 형태를 띠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각 측정문항이 잠재요인에 적합한지에 대한 확인적 요인분석을 수행하고, 요인들 간의 관계모형이 적합한지에 대한 모형적합도를 측정한 후 각 요인 간 경로관계를 통해 분석을 수행하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 배태된 상태(초기경험)과 제도화된 상태(경험강화), 문화욕구의 각 변인 간 인과관계에 대해 분석을 시도하는 것이다. 이에 AMOS 7.0을 이용하여 경로분석을 실시하였다. 경로분석은 변수들 사이에서 상관관계 또는 공분산 그리고 인과관계를 계산한 후 이를 하나의 경로화하여 모형을 구축 및 제시하는 방식이다(오을임, 2001; 서인석 외, 2011: 156). AMOS 분석은 제공하고 있는 다양한 가설모형의 적합도 평가척도 중에서 본 연구는 모수추정치를 도출하기 위해서 최대우도추정방법(Maximum Likelihood Method: MLE)을 사용하였다. 최대우도추정법(Maximum Likelihood Method)은 관찰변수들이 모두 수량변수이고 다변량정규분포의 가정을 크게 벗어나지 않는 경우로서, 측정된 상관행렬과 모형예측상관행렬의 차이에 대해 제곱을 했을 때 이를 최소화하는 선에서 표본자료를 추출했음직한 가능성을 최대화하기 위해 주어진 기준에 따라 미지수 값을 최적으로 계산하는 방법이다. 그렇지만 표본의 규모가 클지라도 다변량정규성이 충족되지 않는다면 GLS가 바람직하다(서인석 외, 2011; 서인석 외, 2014). 한편, 측정변수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해서 개념신뢰도와 분산추출지수를 도출하고, 개념타당성과 판별타당성을 살펴보았다. 이후,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해 모형을 검증하고 경로분석 및 관계의 유의성을 확인하는 방식의 절차로 진행되었다.

한편, 문화예술교육은 성별, 연령, 학력 등 인구학적 특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이러한 구분을 위해 amos 통계패키지의 통제변수 설정방식을 활용하고(배병렬, 2014: 475-479), 매개변수의 통계적 유의성을 확인하기 위해 팬텀변수 설정방식을 적용하고자 하였다(배병렬, 2014: 450-457). 통제변수의 경우, 성별은 조절변수의 형태로 해석하고 연령, 학력, 개인소득의 경우 서열척도로 해석하였다. 팬텀변수의 경우 다음과 같은 특징을 지닌다. 팬텀변수는 개별 매개변수에 대한 가상의 변수로 이를 추정하면 특정간접효과를 얻을 수 있고, 부트래핑(Bootstrapping)을 이용 통계적 유의성 역시 도출가능하다. 특히, 팬텀변수는 가상의 변수이기 때문에 모형적합도 및 모수치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배병렬, 2014: 116 & 440).



〈표 4〉 인구학적 특성

인적요인	구성요소	빈도(명)	비율(%)
성별	남성	2489	49.1
	여성	2585	50.9
	합계	5074	100
연령	20대미만	489	11
	20대이상~30대미만	701	14
	30대이상~40대미만	1000	20
	40대이상~50대미만	1083	21
	50대이상~60대미만	885	17
	60대이상	916	17
	합계	5074	100
학력	무학	171	3.4
	초등학교	329	6.5
	중학교	526	10.4
	고등학교	1946	38.4
	대학(4년제 미만)	733	14.5
	대학교(4년제 이상)	1312	25.9
	대학원 석사 과정	47	0.9
	대학원 박사 과정	9	0.2
	무응답	2	0.0
합계	5074	100.0	
개인소득	소득없음	2276	44.9
	월평균 100만원 미만	384	7.6
	월평균 100만원 - 200만원 미만	885	17.4
	월평균 200만원 - 300만원 미만	702	13.8
	월평균 300만원 - 400만원 미만	554	10.9
	월평균 400만원 - 500만원 미만	133	2.6
	월평균 500만원 - 600만원 미만	84	1.7
	월평균 600만원 - 700만원 미만	24	0.5
	월평균 700만원 - 800만원 미만	16	0.3
	월평균 800만원 - 900만원 미만	4	0.1
	월평균 900만원 - 1,000만원 미만	1	0.0
	월평균 1,000만원 이상	9	0.2
	무응답	2	0.0
합계	5074	100.0	

자료: 2012년 문화향수 실태조사(2014)

본 연구에서 활용한 자료는 2012년 문화향수 실태조사 원자료이다. 이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이 한국 국민들의 문화향유 수요 및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실시한 것으로 2013년 1월에 발표되었고, 2014년 이후 원자료가 공개되고 있다. 이 조사는 전국 16개 시도, 만 15세 이상 성인 남녀 5,074명을 대상으로 면접조사방식으로 수행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활용한 자료 수 역시 5074개였다.

## IV. 분석결과 논의

### 1. 신뢰도 검증

본 연구에서는 측정변수가 각 요인을 어느 정도 설명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개념 신뢰도와 분산추출지수를 활용하였다<sup>4)</sup>. <표 5>과 같이 모든 영역의 개념신뢰도가 0.45에서 0.7까지 그리고 분산추출지수가 0.3에서 0.5까지로 나타났다.

<표 5>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한 개념신뢰도와 분산추출지수<sup>5)</sup>

요인	관측변수	표준화 계수	오차항 분산치	개념신뢰도	분산추출지수
유소년기 문화예술교육	q9	0.738	0.455	0.670	0.504
	q8	0.681	0.536		
매체이용경험	q4_1_5a	0.607	0.632	0.670	0.404
	q4_1_6a	0.645	0.584		
	q4_1_8a	0.653	0.574		
예술참여활동	q5_1_5	0.677	0.542	0.685	0.421
	q5_1_6	0.68	0.538		
	q5_1_8	0.585	0.658		
문화예술교육	q10_8a	0.613	0.624	0.623	0.356
	q10_7a	0.63	0.603		
	q10_6a	0.543	0.705		
문화동호회	q15_9a	0.488	0.762	0.468	0.308
	q15_8a	0.615	0.622		
문화욕구	q2_1_5	0.75	0.438	0.701	0.449
	q2_1_6	0.759	0.424		
	q2_1_9	0.458	0.790		

유소년기 문화예술교육, 매체이용경험, 예술참여활동, 문화예술교육, 문화욕구는 각각 개념신뢰도가 0.6수준을 넘어서고 있다. 다만, 문화동호회가 0.47로 나타나 다소 낮았지만, 동호회 활동

4) 개념 신뢰도(Construct reliability)와 분산추출지수(Variance extracted)는 잠재요인과 측정변수 간의 회귀계수와 분산을 활용하여 개념타당성과 수렴타당성을 살펴볼 수 있어 관계성의 연구에 중요한 방식으로 활용될 수 있다(김계수, 2007: 370).

5) 이론적으로 개념신뢰도는 0.7 이상, 분산 추출지수(Variance Extracted)는 0.5 이상이면 측정모형은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김계수, 2007: 371). 본 연구에서는 산출된 관측변수의 표준화 회귀계수와 각 관측변수에 포함된 오차항을 토대로 개념신뢰도와 분산추출지수를 구하였다. 여기서 개념신뢰도와 분산추출지수

의 산출공식은 
$$\frac{(\sum \text{표준화 회귀계수})^2}{[(\sum \text{표준화 회귀계수})^2 + (\sum (1 - \text{표준화 회귀계수}^2))]} \text{ 과}$$

$$\frac{(\sum \text{표준화 회귀계수}^2)}{[(\sum \text{표준화 회귀계수}^2) + (\sum (1 - \text{표준화 회귀계수}^2))]} \text{ 이다.}$$

이 많은 연구들로부터 강조되고 있다는 점에서 사용하고자 하였다. 분산추출지수의 경우 문화예술교육과 문화동호회가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었지만, 본 연구에서는 이를 사용하였다. 이러한 수용은 연구에 있어 통계적 수치에 대한 정밀함과 엄격함이 중요할 수도 있겠으나, 사회과학연구의 이론 및 과정에 근거한 개념들을 통계적 유의성을 가지고 확고하게 배격하는 것이(김계수, 2007: 108) 오히려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다.

〈표 6〉 결정계수( $R^2$ )와 분산추출지수

구분	유소년기 문화예술교육	매체이용경험	예술참여활동	문화예술교육	문화동호회	문화욕구
유소년기 문화예술교육	0.504 *					
매체이용경험	0.014	0.392 *				
예술참여활동	0.016	0.021	0.421 *			
문화예술교육	0.047	0.032	0.123	0.356 *		
문화동호회	0.063	0.015	0.040	0.265	0.301 *	
문화욕구	0.063	0.159	0.054	0.025	0.021	0.449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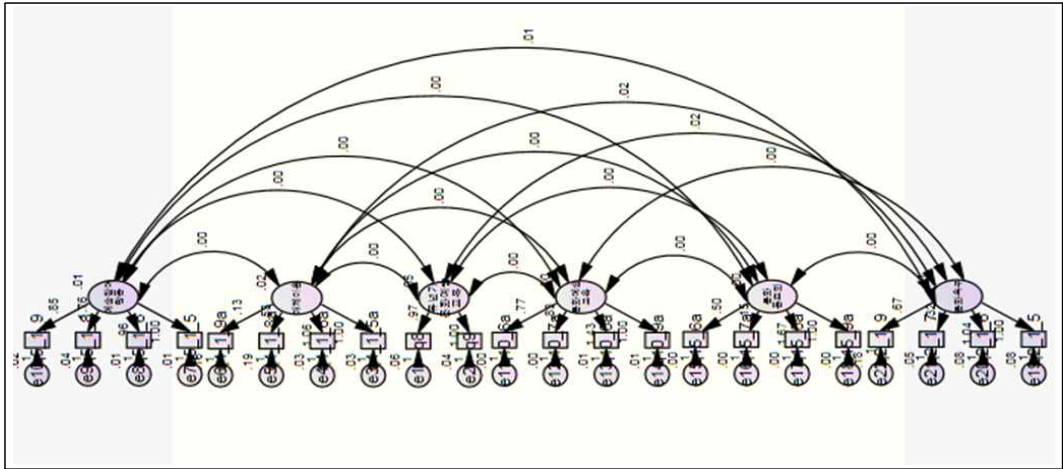
다음으로 판별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해서 본 연구에서는 결정계수와 분산추출지수를 비교하였다. 각 요인을 통해 도출된 분산추출지수가 결정계수보다 크면 두 요인 사이에는 판별타당성이 확보되었다고 할 수 있다(김계수, 2007: 372-373). 〈표 6〉은 각 요인들의 결정계수와 분산추출지수를 나타낸 것이며, 각 요인의 분산추출지수 값 모두 요인의 결정계수보다 큰 것을 확인할 수 있다.

## 2. 확인적 요인분석 및 모형분석결과

### 1) 확인적 요인분석

측정문항의 신뢰성 및 타당성 분석을 통해 검증된 문항들에 대해서 구조방정식모형을 적용하여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각 구성개념인 요인 간 상관을 고려하여 전체 모델의 적합수준을 파악하고, 또한 개별 요인에 대한 관측변수 신뢰도를 검증한 후 최종문항의 전체 모델에서의 신뢰도를 파악하기 위해서 전체모델에 대한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때 추정방식은 요인에 대한 잠재적 모수 추정을 위해 최대우도법을 활용하였다. 그 결과는 〈그림 2〉와 같다.

〈그림 2〉 전체요인의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표 7〉 확인적 요인분석결과의 적합도

$\chi^2$	D.F	GFI	AGFI	NFI	TLI	RMR	RMSEA
3448.2	194	0.937	0.918	0.8	0.772	0.004	0.058
Sig.	CFI	IFI	-	-	-	-	-
0.000	0.808	0.809	-	-	-	-	-

우선, 모형의 적합도를 살펴보는 지수를 보면, 전반적 적합도 지수인 GFI, 제안모델과 기초모델을 비교할 수 있는 TLI(Tucker-Lewis Index), 기초모델에 비해 제안모델이 어느 정도 향상되었는지를 나타내는 NFI(normed fit index)는 0.8이면 적합, 0.9이상이면 매우 좋은 모델로 평가되며 1에 가까울수록 바람직하다(이배영 외, 2009: 89-90). 위의 전체 확인적 요인분석 모형은 GFI 0.937, AGFI 0.918, NFI와 TLI는 각각 0.8, 0.772으로 나타나 전반적으로 나쁘지는 않았지만, 다소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되었다. 둘째로, 오차를 평가하는 지수 중 RMR은 0.05이하거나 0에 가까울수록 바람직하고 또한 모형 추정치 값과 공분산 행렬의 적합도를 평가하는 RMSEA(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 또한 일반적 기준으로 이 값이 0.10 이하면 수용가능하고, 0.05에서 0.08 사이의 값을 가지면 매우 적합한 모델이라고 판단할 수 있다(이배영 외, 2009: 90)6). 이를 기초로 RMR은 0.004로 부합하였으며, RMSEA는 0.058로 수용범위를 만족하고 있었으나, CFI와 IFI의 수준은 더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전체적으로 관계성을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의 검증이기 때문에 이론적 모형 검증시에는 더 낮은 모형적합도를 확보할 수 있다.

6) 이배영 외(2009)는 RMR이 0.05이하를 기준으로 제시하였으나, 그는 RMR과 RMSEA 모두 0.05에서 0.08 사이의 값이면 적합한 모형으로 채택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표 8〉 잠재변수와 관측변수 간 경로의 유의성 검증

관측변수	방향	잠재변수	표준화	비표준화	S.E.	C.R.	P
q9	←	유소년기 문화예술 교육	0.738	1			
q8	←	유소년기 문화예술 교육	0.681	0.966	0.065	14.809	***
q4_1_5a	←	매체이용	0.607	1			
q4_1_6a	←	매체이용	0.645	1.057	0.067	15.819	***
q4_1_8a	←	매체이용	0.653	1.047	0.068	8.066	***
q5_1_5	←	예술참여 활동	0.677	1			
q5_1_6	←	예술참여 활동	0.68	0.959	0.03	31.955	***
q5_1_8	←	예술참여 활동	0.585	1.761	0.058	30.156	***
q10_8a	←	문화예술 교육	0.613	1.632	0.069	23.69	***
q10_7a	←	문화예술 교육	0.63	1.376	0.065	21.136	***
q10_6a	←	문화예술 교육	0.543	1			
q15_9a	←	문화동호회	0.488	1			
q15_8a	←	문화동호회	0.615	1.528	0.199	7.662	***
q2_1_5	←	문화욕구	0.75	1			
q2_1_6	←	문화욕구	0.759	1.044	0.029	36.324	***
q2_1_9	←	문화욕구	0.458	0.67	0.025	27.316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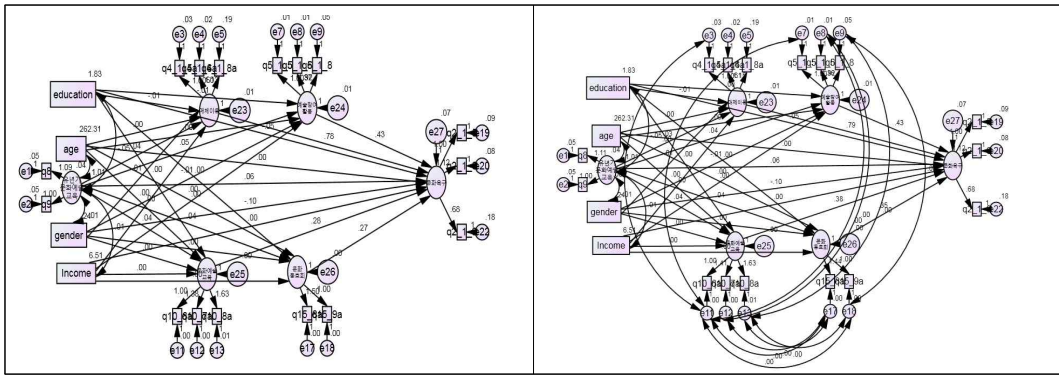
확인적 요인 분석결과, 모든 경로가 0.001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이는 잠재요인과 관측변수 간의 경로가 높은 타당성을 확보한 것을 의미하며 이에 기초하여 분석을 시도하였다.

## 2) 모형수정: 기초모형 및 수정모형의 비교

본 연구에서는 유소년기의 초기경험이 성인이 된 이후의 경험을 강화시켜 이것이 문화욕구로 이어지는 구조적 관계를 연구모형으로 설정하였고, 확인적 요인분석을 토대로 타당성이 확보된 잠재요인들 간의 경로를 설정하여 분석을 시도하였다. 이때 나타나게 되는 모형 적합도를 기준으로 모형의 수용여부를 결정하고, 만일 만족스럽지 못한 경우 이 모형을 수정하여 만족할만한 모형 적합도가 얻어지는 상황에서 요인간의 경로분석을 실시하고자 하였다.

〈그림 3〉은 기초모형으로 구체화한 잠재요인간 경로를 분석한 결과이다. 본 연구에서는 카이제곱 및 확률값을 모형 적합성의 판단근거로 하는 동시에, 이와 더불어 적합도지수(GFI), 조정된 적합도지수(AGFI), 평균제곱잔차제곱근(RMR) 등 가능한 고려해야 하는 지수들을 총괄적으로 살펴 보면서 적합도를 평가하고자 한다. 한편, 구조방정식모델에서는 연구자가 초기에 제시한 기초모형의 적합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모형에 대한 수정작업을 적용할 수 있다(서인석 외, 2012). 그러나 수정모형은 논리적인 근거가 있어야 하며, 오차항 사이에 공분산(covariance)이 존재할 개연성을 가정하여 공분산을 자유화시킴으로서 적합도가 높아지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수정지수 중 par change가 양(+)의 값을 보이는 오차항 간의 공분산을 중심으로 모형수정을 진행하였다(이배영 외, 2009: 91-92).

〈그림 3〉 기초모형 및 수정모형



〈표 9〉는 기초모형의 적합도와 수정모형의 적합도를 비교·요약한 것이다. 전체모형의 분석결과 요약에서 보는 바와 같이 기초모형과 비교한 최종수정모형의 적합도 향상 정도를 보면, 카이제곱 값은 5011에서 1331로 대폭 낮아졌으며, 대부분의 적합도 지표가 0.9수준을 확보하였다. 전반적으로 많은 개선이 이루어졌으며, 좋은 모형이라고 판단되었다.

〈표 9〉 수정모형 검증결과 요약표

모형	$\chi^2$	D.F	GFI	AGFI	NFI	TLI	RMSEA
초기	5011.69	141	0.910	0.866	0.712	0.618	0.083
수정	1331.01	124	0.974	0.956	0.923	0.892	0.044
모형	Sig.	CFI	IFI	-	-	-	-
초기	0.000	0.717	0.717	-	-	-	-
수정	0.000	0.930	0.930	-	-	-	-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최종모형에 대한 평가를 논의해보면 초기모형에서 적합도에 부합하지 못하였던 NFI, CFI, IFI 모두 0.9수준을 상회하는 모형적합도를 확보하였다. 결국 수정모형은 모든 적합도를 만족시키는 모형이기에 최종모형으로 고려하여 경로분석을 실시하였다.

### 3. 가설검증 및 분석결과 논의

분석결과를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문화욕구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중에서 유소년기문화예술교육 경험(p<0.001), 매체이용 경험(p<0.05), 예술참여활동 경험(p<0.001), 문화예술교육 경험(p<0.001)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으나, 문화동호회는 유의미하지 않았다. 이때 통계적 유의성을 지닌 변인들은 모두 정(+)의 방향성을 가지고 있었다. 유소년기 문화예술교육 경험은 정체성이 확립되기 전에 심어진 인식 및 자각으로써 성장한 이후에도 상당한 문화

욕구를 강화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 매체이용의 경험은 문화에 대한 인지적 접근성을 높여 문화욕구를 강화하는 효과를 가져오게 된다. 예술참여활동에 대한 경험 역시 문화예술이라는 장르에 대한 이해도와 접근성을 높임으로써 문화욕구를 높일 수 있다. 문화예술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을수록 충분히 문화를 향유하려는 의지를 강화시켜 줄 수 있다. 다만, 문화동호회의 경우 가설적으로는 동호회 활동을 통해 다양한 예술문화에 대한 정보를 접할 수 있고, 동호회 구성원과의 대화를 통해 간접경험을 얻음으로써 문화욕구에 기여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하였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 이를 확인하지는 못하였다. 어쩌면 이론과는 다르게 동호회 활동은 '동호회'라는 특정 조직에 귀속되는 과정에서 '적응'의 수준이나 관계 등이 소원할 경우 충분한 문화습득이 어려울지도 모른다. 이는 좀 더 심층적인 연구가 수반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그렇지만, 문화동호회의 개념신뢰도와 분산추출지수가 낮았던 만큼 이에 대한 추후연구가 병행될 때 해석에 대한 타당성이 확보될 수 있다. 따라서, 후속연구를 통해 이에 대한 추가검증이 필요하다.

한편, 통제변수에 대한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우선, 성별의 경우 '매체이용', '예술참여활동', '문화욕구'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매체이용은 여성이 남성에 비해 3.7% 이용이 낮았다. 예술참여활동 역시 여성이 남성에 비해 5.2% 낮은 수준을 보였다. 문화욕구에 있어서도 여성이 남성에 비해 15.2% 낮은 수치를 보여주었다. 일반적으로 여성이 남성에 비해 문화적 활동이 높을 것이라 생각하는 것과는 다른 결과이다. 이러한 결과를 조심스럽게 접근한다면, 최근 양성평등의 관점이 높아져 여성의 사회참여 및 문화활동이 높아졌지만, 여전히 50대 이상에서는 여성에 대한 교육 및 문화활동 등이 상당히 제약되었을 수 있다. 이러한 차이로 인해 나타난 결과로 판단된다. 둘째, 나이의 경우 '매체이용', '예술참여활동', '문화동호회', '문화욕구'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매체이용은 나이가 들수록 이용률이 5.7% 높아졌으며, 예술참여활동 역시 나이가 들수록 참여수준이 3.7% 높아졌다. 문화동호회의 경우는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4.9%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동호회만이 다른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문화욕구는 역시 나이가 들수록 17.2%가 높아짐을 확인하였다. 셋째, 교육의 경우 '매체이용', '예술참여활동', '문화욕구'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매체이용은 교육수준이 높아질수록 이용률이 12.8% 낮아졌으며, 예술참여활동 역시 교육수준이 높아질수록 7.2% 낮아졌다. 문화욕구 역시 교육수준이 높아질수록 나이가 들수록 21.7%가 높아짐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교육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더 다양한 문화를 접하면서 문화욕구가 높아질 수 있다는 관점과 다른 결과이다. 이러한 결과에 기초해 해석하면 문화에 대한 욕구는 오히려 다양한 문화를 접하거나 누리지 못한 저학력에서 더 높아질 수 있다는 것이다. 욕구의 불평등이 나타나는 부분이다. 그렇지만, 이 역시 추가적인 연구를 통한 해석이 필요할 것이라 여겨진다. 마지막으로, 소득의 경우 모든 변수에서 통계적 유의성을 확보하지 못하였다. 문화자본이 경제적 차이에 의해 내재할 수 있고 (Bourdieu, 1984), 이에 소득계층에 따른 분석이 필요할 수 있다는 기존 관점을 지지하지 않았다. 종합해보면, 통제변수의 결과는 사회의 다양한 계층에 따라 상당한 격차를 보일 수 있다는 조돈문(2005)의 결과를 일부만 지지할 뿐이다. 한국의 사회계층이 상당히 변화하였고, 인구변동이 매우 높은 최근의 경향에서 이에 대한 새롭고 다른 시각에서의 접근하려는 노력이 필요할 수 있다.

〈표 10〉 잠재변수간 경로계수 결과

종속	방향	독립	표준화	비표준화	S.E.	C.R.	P
매체이용	←	유년기_문화예술_교육	0.06	0.035	0.015	2.345	** (0.019)
예술참여_활동	←	유년기_문화예술_교육	0.103	0.043	0.01	4.513	***
문화예술_교육	←	유년기_문화예술_교육	0.208	0.037	0.005	8.297	***
문화_동호회	←	유년기_문화예술_교육	0.261	0.038	0.005	6.918	***
매체이용	←	gender	-0.037	-0.009	0.005	-1.9	* (0.057)
예술참여_활동	←	gender	-0.052	-0.009	0.003	-3.022	** (0.003)
문화_동호회	←	gender	-0.002	0	0.001	-0.085	0.932
문화예술_교육	←	gender	-0.014	-0.001	0.001	-0.801	0.423
매체이용	←	age	0.057	0	0	2.43	** (0.015)
예술참여_활동	←	age	0.037	0	0	1.747	* (0.081)
문화예술_교육	←	age	-0.011	0	0	-0.515	0.607
문화_동호회	←	age	-0.049	0	0	-1.859	* (0.063)
예술참여_활동	←	education(q23_1)	-0.072	-0.005	0.001	-3.462	***
매체이용	←	education(q23_1)	-0.128	-0.012	0.002	-5.368	***
문화_동호회	←	education(q23_1)	-0.009	0	0.001	-0.347	0.729
문화예술_교육	←	education(q23_1)	-0.016	0	0.001	-0.744	0.457
문화_동호회	←	income(q31_1)	-0.006	0	0	-0.287	0.774
문화예술_교육	←	income(q31_1)	0.021	0	0	1.158	0.247
예술참여_활동	←	income(q31_1)	0.017	0.001	0.001	0.955	0.34
매체이용	←	income(q31_1)	-0.025	-0.001	0.001	-1.246	0.213
문화욕구	←	유년기_문화예술_교육	0.041	0.062	0.034	1.828	* (0.068)
문화욕구	←	매체이용	0.308	0.793	0.06	13.283	***
문화욕구	←	예술참여_활동	0.122	0.433	0.063	6.876	***
문화욕구	←	문화예술_교육	0.046	0.383	0.151	2.543	** (0.011)
문화욕구	←	문화_동호회	0.033	0.347	0.232	1.499	0.134
문화욕구	←	education(q23_1)	-0.217	-0.05	0.004	-11.342	***
문화욕구	←	age	0.172	0.003	0	8.985	***
문화욕구	←	gender	-0.152	-0.097	0.01	-9.655	***
문화욕구	←	income(q31_1)	0.000	0.002	0.002	0.893	0.37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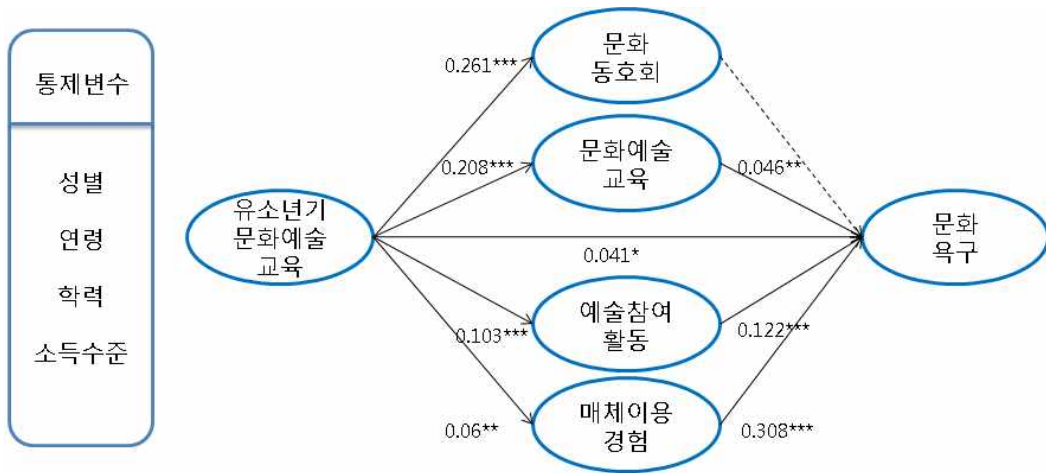
\* p&lt;0.1 \*\* p&lt;0.05 \*\*\* p&lt;0.001

〈표 10〉은 잠재변수간 경로계수 결과를 나타낸다. 비표준화 계수를 살펴보면, 매체이용의 경로 계수가 월등한 수준임을 알 수 있다( $\beta=0.308$ ). 통계적 유의성을 확인할 수 있는 C.R. 수치가 매체 이용경험이 가장 확정적인 수준을 확보하고 있었다(13.283)<sup>7)</sup>.

7) 일반적으로 t분포 값을 의미한다.



〈그림 4〉 연구모형의 경로계수 검증



주: \* p<0.1, \*\* p<.05, \*\*\* p<.001, 점선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경로를 나타냄

이상의 분석결과를 토대로 해석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체화된 경험’으로써 유소년기문화예술 교육은 향후 문화와 관련된 다양한 제도를 선택하게 하는 중요한 인자(因子)였다는 점이다. 성장기의 교육은 자기정체성이 확립되기 이전에 내재화되는 성향을 지닌다(Bourdieu, 1984). 이렇게 체화된 경험은 자신의 선호를 형성하게 되며, 선호의 일부로써 의식적 또는 무의식적 선택의 결정인자가 되는 것이다. 게다가, ‘체화된 경험’은 그 자체로 선호로 작용하기 때문에 문화를 향유하고 누리려는 욕구를 강화하게 된다. 따라서, 유소년기 문화예술교육은 ‘체화된 경험’으로써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것이다. Bourdieu(1984)의 주장처럼 문화를 누리는 것이 계급에 따라 달라지지는 않는다고 할지라도 주거조건, 가족문화, 재력 등의 다양한 여건에 의해 더 많고 다양한 ‘문화경험’과 ‘문화인식’을 체화하는 사람과 그러한 경험을 충분히 얻을 수 없는 여건의 누군가는 문화를 누리고 삶의 가치를 높이려는 데 있어 상당한 차이를 보이게 될 것이다. 즉, 인간으로써의 삶, 행복, 웰빙 그 모든 여건에서 문화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지금, 더 나은 인간적인 삶을 누릴 수 있는 토대를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문화예술은 일상생활로부터 발생하는 많은 스트레스를 낮추거나 해소하고, 개인이 가진 심적 안정을 가져옴으로써 분노를 낮추고 다시 일상생활을 향유할 수 있는 기쁨을 제공하게 된다. 많은 돈을 버는데 집중했던 과거의 ‘행복’으로는 현대의 스트레스, 불안감, 분노장애 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진정한 ‘행복’을 취하기 어렵다.

다음으로, ‘제도화된 경험’으로써 다양한 제도 및 채널은 문화욕구를 강화하는 중요한 요소임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에서 문화욕구로서 사용한 변수인 관람의향(연극, 뮤지컬, 영화, 대중음악)은 정보매체(스마트폰, 태블릿PC)의 다변화를 통한 접근성, SNS와 같은 인터넷 기반 접근방식 등에 따라 더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인다. 실제로 경로계수 중 가장 높은 매개변인은 매체이용경험이었다. 매체를 이용해서 문화콘텐츠를 경험한 사람은 향후 문화콘텐츠를 재이용하거나 이용하려는 욕구를 크게 높일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문화예술교육, 예술참여활동, 문화동호회 등

의 경험 보다 문화욕구를 강화하는데 더 강력한 변인(變因)임을 의미한다. 따라서, 문화콘텐츠를 향유할 수 있는 다양한 매체와 매체를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기회를 제도적으로 강화할 경우 문화욕구를 강하게 이끌어 갈 수 있다.

〈표 11〉 문화욕구에 대한 효과순위

구분	직접효과	간접효과		총효과	순위
		간접경로	효과		
매체이용경험	0.308	-	-	0.308	1
예술참여활동	0.122	-	-	0.155	2
문화예술교육	0.046	-	-	0.046	4
유소년기 문화예술교육	0.041	유소년기문화예술교육× 문화예술교육	0.002	0.061	3
		유소년기문화예술교육× 예술참여활동	0.005		
		유소년기문화예술교육× 매체이용경험	0.013		
		총	0.02		

마지막으로, 문화욕구에 대한 효과순위를 살펴보면 〈표 11〉과 같다. 매체이용경험은 문화예술교육의 7배가 넘는 수준이었고, 예술참여활동에 비해서도 2배가 넘는 수준이었다. 유소년기문화예술교육 역시 문화예술교육의 5배가 넘는 수준이며, 예술참여활동 보다도 1.5배가 넘는 수준이었다. 이러한 결론은 매체이용경험과 유소년기문화예술교육이 다른 변인들에 비해 문화욕구를 높이는데 큰 영향을 미치는 변인임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를 살펴본다면 정체성이 확립된 이후의 문화예술교육은 실제로 그 효과는 미비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단순한 문화예술교육과 같은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보다는 문화예술체험을 할 수 있는 바우처 등을 제공함으로써 실제 체험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인 문화욕구 증진방식이 될 수 있다.

〈표 12〉 연구모형의 가설검증

가설	연구가설	매개 변인	추정치 (비표준화)	신뢰구간	P	기각여부
H1	유소년기문화예술교육→문화욕구	(+)	0.253	-	0.000	기각되지 않음
H2	유소년기문화예술교육 → 매체이용경험 → 문화욕구	(+)	0.919	0.767~1.1	0.002	기각되지 않음
H3	유소년기문화예술교육 → 예술참여활동경험 → 문화욕구	(+)	0.558	0.413~0.722	0.002	기각되지 않음
H4	유소년기문화예술교육 → 문화예술교육경험 → 문화욕구	(+)	0.346	0.04~0.709	0.056	기각되지 않음
H5	유소년기문화예술교육 → 문화동호회활동경험 → 문화욕구	(+)	0.21	-0.482~1.017	0.543	기각

〈표 12〉는 연구모형의 가설검증 결과이다. 청소년기문화예술교육과 문화욕구의 관계에서 매체 이용경험, 예술참여활동경험, 문화예술교육경험, 문화동호회활동경험 각각에 대한 매개효과 검증을 위해 본 연구는 팬텀변수(Phantom Variable)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sup>8)</sup>. 분석결과, 청소년기문화예술교육이 문화욕구에 (+)의 관계를 가진다는 H1, 청소년기문화예술교육이 매체이용경험을 매개로 문화욕구에 정(+)의 관계를 가진다는 H2, 청소년기문화예술교육이 예술참여활동경험을 매개로 문화욕구에 정(+)의 관계를 가진다는 정(+)의 관계를 가진다는 H3, 청소년기문화예술교육이 문화예술교육경험을 매개로 문화욕구에 정(+)의 관계를 가진다는 H4는 통계적 유의성과 방향성 모두를 충족시켜 가설은 기각되지 않았다. 다만, 청소년기문화예술교육이 문화동호회활동경험을 매개로 문화욕구에 정(+)의 관계를 가진다는 H5의 경우 통계적 유의성을 확인하지 못하여 기각되었다.

## V. 결론 및 정책적 함의

본 연구는 21세의 문화의 중요성을 자각하고 문화를 중요시 간주하였던 Bourdieu(1984)의 문화자본가설을 모형화하여 검증해보고자 하였다. 즉, 21세기의 삶의 질적 고양에 문화를 배제하고서는 어려울 수 있으며, 개개인이 원하는 적합한 문화생활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를 위한 다양한 경험이 중요함을 강조하면서 이러한 문화욕구와 내재 및 제도화된 경험 간의 인과관계를 검증해보고자 하였다. Bourdieu(1984)가 언급하였던 '체화된 문화'는 과거의 체화된 교육경험으로 제시하면서 이를 선행변수로 선정하였으며, '객관화된 그리고 제도화된 문화'의 경우 문화에 접근할 수 있는 다양한 제도적 채널로 간주하였다. 이때 이러한 변수는 선행변수로부터 영향을 받기 때문에 매개변수로 모형화하였으며, 문화욕구를 최종적인 변인으로 하는 구조모형을 설정하여 구조방정식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몇 가지 정책적 시사점을 확인해볼 수 있었다. 첫째, 다양한 문화교육과정이 성장기에 제도적으로 구체화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체화된 경험'으로써 청소년기문화예술교육은 성장한 이후 문화와 관련된 다양한 제도를 선택하게 하는 중요한 인자였음을 확인하였는데, 성장기 때 충분한 문화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성년이 되었을 때 문화의 자율적 선택과 소비가 어려워질 수 있다. 성장기의 다양한 문화교육은 자라나면서 자신의 정체성과 삶의 향유와 관련해 적합한 문화활동을 이해할 수 있고 접근할 수 있으며,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줄 수 있다. 물론, 성장기의 교육은 자기정체성이 확립되기 이전에 내재화되는 성향을(Bourdieu, 1986) 지니기 때문에 이것이 자신의 선호를 형성하게 되는 역할을 할 수도 있겠지만, 많은 경험과 자각은 스스로의 자율적 선택권을 높이는 기회를 제공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자율적 선택은 인간으로써의 삶, 행복, 웰빙을 누리는 데 있어 기본이 될 수 있는 스트레스 해소, 심적 안정을 부여하는 데 큰 역할

8) 이때의 모형적합도는  $\chi^2=749.10$ , 자유도=84,  $p=0.000$ , GFI=0.981, AGFI=0.97, NFI=0.941, TLI=0.925, RMR=0.004, RMSEA=0.04로 확인되었다.

을 하게 될 것이다.

둘째, 객관화 및 제도화된 문화도 시기에 따라 맥락에 따라 중요시되어야 할 요소가 달라질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제도화된 경험’으로써 다양한 제도 및 채널은 문화욕구를 강화하는 중요한 요소들이었지만, 이 중 이용매체 경험은 문화욕구를 강화하는 가장 강력하고 중요한 변인이었다. 사실 스마트폰이나 테블릿PC 등과 같은 지금의 이용매체들은 SNS와 같은 인터넷 채널을 통해 더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문화와의 접근성을 강화시켜준다. 특히, 매체를 이용해서 문화콘텐츠를 경험한 사람은 향후 문화콘텐츠를 재이용하거나 이용하려는 욕구를 크게 높일 수 있다는 점은 문화콘텐츠를 향유할 수 있는 다양한 매체와 매체를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공공서비스를 제도화하는 것이 매우 중요할 수 있음을 상기시켰다.

마지막으로, 유소년기의 경험 뿐만 아니라 성장한 이후의 접근성이 모두 중요하다는 것을 확인하였다는 점이다. Bourdieu(1986)는 어린시절 또는 성장기의 내재화된 경험이 이후의 문화적 차이를 가져온다고 강조한 바 있지만, 본 연구 결과는 성장이후 즉 정체성이 확립된 이후에도 이용매체와 같은 용이한 접근방법이 존재할 경우 문화를 향유하려는 욕구가 강화될 수 있음을 밝히고 있다. 이는 유소년기의 경험 및 내재화된 성향이 원인이 될 수 있지만 결정인자가 될 수 없음을 의미하는 것이며, 따라서 유소년기의 교육과 더불어 제도적 경험이나 보완은 충분히 문화욕구를 증진시킬 수 있는 토대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지나친 계급적 시각으로 문화향유를 접근하는 것 또한 문제의 소지가 될 수 있음을 본 연구결과는 시사한다.

이상의 연구결과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한계 또한 내포하고 있다. 문화에 대한 정의는 매우 광범위하고 문화욕구 또한 다양한 의견이 존재한다. 따라서, 본 연구가 제시한 이론적 정의들은 향후 더 많은 논의들을 통해 구체화되고 다듬어져야 할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가 문화욕구로 사용한 ‘관람의향’은 매우 협소한 것이기에 한계점이라고 볼 수 있다. 다음으로, 제도화된 경험은 사실 더 많은 더 다양한 제도와 요소가 존재할지도 모른다. 본 연구는 가장 대표적인 방식들을 객관화 및 제도화된 방식으로 제시하였는데, 향후 연구들은 다양한 방식들에 대해 논의가 있으면 좋겠다. 마지막으로, 문화욕구는 다양한 계층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관점들을 추가적으로 논의해볼 필요가 있다. 문화를 누리하고자 하는 계층은 연령에 따라, 성별에 따라, 지역에 따라, 소득에 따라 각기 다양해질 수 있다. 본 연구는 시론적 차원에서 이상의 논의를 모두 포괄하지는 못하였는 바, 이는 향후 연구에서 추가적으로 살펴보고 논의를 가져가 볼 예정이다.

## 참고문헌

- 강명구·이상규. (2011). 이론과 현실 사이에서: 부르디외 이론의 적용과 변용, 혹은 생성. 언론과 사회, 19(4): 87-133.
- 구교준·임재영·최슬기. (2014). 소득과 삶의 역량에 따른 행복 결정요인 연구. 한국행정학보, 48(2): 317-339.

- 김석태·서준교. (2003). 지방정부의 문화예산이 지방문화지수에 미치는 영향. 한국정책과학학회보, 7(3): 338-359.
- 배병렬. (2014). Amos21 구조방정식모델링: 원리와 실제. 도서출판 청람.
- 백병부·김경근. (2007). 학업성취와 경제자본, 사회자본, 문화자본의 구조적 관계. 교육사회학연구, 17(3): 101-129.
- 남은영. (2010). 한국 중산층의 소비문화: 문화자본과 사회자본의 함의를 중심으로. 한국사회학, 44: 126-161.
- 서인석·조현석·권기현. (2013). 단절시계열을 활용한 국회입법지원제도의 정책효과분석: 동형화(isomorphism)이론의 제도수용과 안정화 관점을 중심으로.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24(1): 245-269.
- 서인석·이승중·기영화. (2014). 지방행정서비스와 커뮤니티웰빙 구성요소 간 관계: Kee 모형의 6개 자본요인을 중심으로. 한국행정연구, 23(2): 175-202.
- 서인석·우창빈·기영화. (2016). 지니계수를 활용한 지역의 행복불평등 수준 분석. 지방행정연구, 30(1).
- 서순복. (2010). 문화적 자본과 사회적 자본의 관계에 관한 연구. 2010 서울행정학회 동계학술대회. pp: 145-162.
- 송한나·이명진·최셋별. (2013). 한국 사회의 객관적 계급위치와 주관적 계층의식간 격차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인구학, 36(3): 97-119.
- 이호영·서우석. (2011). 문화예술 교육 경험이 문화 불평등에 미치는 영향. 문화정책논총, 25(1): 91-118.
- 이호영·장미혜·박현주. (2006). 문화자본이 정보불평등에 미치는 영향.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06-02.
- 장미혜. (2002). 사회계층의 문화적 재생산: 대학 간 위계서열에 따른 부모의 계급구성의 차이. 한국사회학, 36(4): 223-251.
- 조돈문. (2005). 한국사회의 계급과 문화: 문화자본론 가설들의 경험적 검증을 중심으로. 한국사회학, 39(2): 1-33.
- 조광익·도경록. (2010). 여가 소비와 문화자본의 관계: 여가 스포츠 활동을 중심으로. 관광연구, 25(5): 291-314.
- 최셋별·이명진. (2012). 한국의 문화자본 지형도 구성을 위한 척도개발 기초연구. 문화예술 활동과 음악선호를 중심으로. 조사연구, 13(1): 61-87.
- 최셋별. (2006). 한국 사회에 문화 자본은 존재하는가? 문화와 사회, 1: 123-158.
- 최은용. (2014). 문화자본이 문화향유 태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무용기록학회, 32: 221-235.
- 한준·한신갑·신동엽·구자숙. (2007). 한국인의 문화적 경계와 문화적 위계구조. 문화와 사회, 통권 2권: 29-53
- 홍성민. (2004). 피에르 부르디외와 한국 사회: 이론과 현실의 비교 정치학. 출판사: 살림.

- reproduction.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62(4). 573-587.
- Bourdieu, Pierre. (1984). *Distinction: A Social Critique of the Judgement of Taste*.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 Bourdieu, Pierre. (1986). The forms of capital. In J. Richardson (Ed.) *Handbook of Theory and Research for the Sociology of Education* (New York, Greenwood), 241-258.
- Berstein, Basil. (1975). *Class, Codes and Control*. London: RKP.
- Bonnewitz, P.(1997). *Premiere lecons sur La sociologie de P. Bourdieu*, Presses universitaires de France. 문경자(역)(2000),《부르디외 사회학 입문》 등문선
- De Graaf, Paul M. (1986). The Impact of Financial and Cultural Resources on Educational Attainment in the Netherlands. *Sociology of Education*, 59: 237-46.
- DiMaggio, P. (1982). Cultural capital and school success: the impact of status ultral participation of the gardens of U.S. highschool student.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47. 182-201.
- DiMaggio, P. & Mohr, J. (1985). Cultural capital, educational attainment and martial selection.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90. 1231-1261 .
- Easterlin, R. (1974). Does economic growth improve the human lot?: Some empirical evidence. In P. David & M. Reder (Eds.), *Nations and Households in Economic Growth: Essays in Honour of Moses Abramovitz*. New York: Academic Press.
- Eitle, Tamela McNulty and David Eitle. (2002). Race, Cultural Capital, and the Educational Effects of Participation in Sports.” *Sociology of Education* 73: 92-111.
- Florida, Richard. (2002). *The Rise Of The Creative Class: And How It's Transforming Work, Leisure, Community And Everyday Life*. Basic Books.
- Fiske, J.(1992), *The Cultural Economy of Fandom*, in Lewis, L., ed., *The Adoring Audiences: Fan Culture and Popular Media*. New York : Routledge, 박명진 외 편역 (1996), 《팬덤의 문화 경제학: 문화, 일상, 대중》, 서울 : 한나래.
- Goldin, Claudia, and Lawrence Katz. (2007). Long-Run Changes in the Wage Structure: Narrowing, Widening, Polarizing. *Brookings Papers on Economic Activity*, pp: 135-165.
- Green, Gary P. & Anna L. Haines. (2011). *Asset Building & Community Development*. SAGE Publications, Inc; Third Edition edition.
- Holt, Douglas B. (1998). Does Cultural Capital Structure American Consumption. *Journal of Consumer Research*, 25: 1-25.
- Inglehart, R. (1997). *Modernization and Postmodernization: Culture, Economic, and Political Change in 43 Societies*. Princeton, NJ: Princeton Univ. Press.
- Inglehart, R. (2009). Democracy and happiness: What causes what? In A. Dutt, K. & B. Radcliff (Eds.), *Happiness, Economics, and Politics: Towards a Multi-Disciplinary Approach*. Northampton, MA: Edward Elga.
- Katz-Gerro, Tally. (2002). Highbrow Cultural Consumption and Class Distinction in Italy, Israel,

- West Germany, Sweden, and the United States. *Social Forces*, 81(1): 207-229.
- Katsillis, John., and Richard Rubinson. (1990). Cultural Capital, Student Achievement, and Educational Reproduction: The Case of Greece.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55(2): 270-279.
- Kalmijn, Matthijs., and Gerbert Kraaykamp. (1996). Race, Cultural Capital and Schooling: An Analysis of Trends in The United States. *Sociology of Education* 69: 22-34.
- Marshall, Roger. (1997). Variances in Levels of Individualism across Two Cultures and Three Social Classes. *Journal of Cross-Cultural Psychology*, 28(4): 490-495.
- Mohr, John, DiMaggio, Paul, (1995). The intergenerational transmission of cultural capital. *Research in Social Stratification and Mobility* 14, 167-199.
- Rupp, Jan C.C. (1997). Rethinking Cultural and Economic Capital. pp: 221-242 in John Hall(ed). *Reworking Class*. Ithaca: Cornell University.
- Robinson, Robert., and Maurice Garnier. (1985). Class Reproduction among Men and Women in France: Reproduction Theory on Its Home Ground.' *The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91: 250-280.
- Stevenson, Betsey, and Justin Wolfers. (2008). Economic Growth and Happiness: Reassessing the Easterlin Paradox. *Brookings Papers on Economic Activity*, spring. pp: 1-87.
- Tomlinson, Mark. (2003). Lifestyle and Social Class. *European Sociological Review*, 19(1): 97-111.
- Weininger, Elliot B. (2004). Foundations of Pierre Bourdieu's Class Analysis, in Erik Olin Wright (ed). *Approaches to Class Analysi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Vander Stichele, Alexander, and Rudi Laermans. (2006). Cultural Participation in Flanders: Testing the Cultural Omnivore Thesis with Population Data." *Poetics: Journal of Empirical Research on Culture, the Media and the Arts* 34: 45-64.
- <https://www.marxists.org/reference/subject/philosophy/works/fr/bourdieu-forms-capital.htm>

---

서인석(徐寅錫): 성균관대학교 2013년 행정학 박사학위를 취득하고(학위논문: 국회입법과정에서 정책산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연구), 현재 숭실대학교 SSK 커뮤니티웰빙 연구단에 재직 중이다. 2011년 한국행정학회에서 주관하는 Travel Grant 지원사업수상자로 선정된 바 있다. 주요 관심분야는 사회 및 복지 분야의 정책분석, 정책평가, 연구방법론, 커뮤니티웰빙 등이며, 주요 논문으로는 “정책명칭, 상징, 그리고 수용”(한국행정학보, 2014), “한국 정책대상집단의 사회적 구성에 대한 탐색적 지형화(mapping) 연구”(지방정부연구, 2015), “지방행정서비스와 커뮤니티웰빙 구성요소 간 관계”(한국행정연구, 2014), “주민만족도를 통한 지방행정서비스 평가”(지방행정연구, 2015), “주관적 웰빙과 소득”(지방행정연구, 2015), “지방정부 가치 척도로서 주관적 삶의 질 증진과 커뮤니티웰빙 구성요소의 관계”(한국행정연구, 2015) 등 이외에 다수의 연구물을 학술저널에 게재하고 있다(inseok800414@naver.com)

## Abstract

### The Policy Effectiveness of Cultural Artistic Education Influencing Cultural Desires: Focusing on the Mediating Effect of the “Institution” Related to Culture

Seo, In-seok

This research emphasized the fact that, if culture is excluded, it can be difficult to raise the quality of life in the 21st century, and in order to live a civilized life that the individuals want, diverse experiences for this are important, so this researcher attempted to verify the causal relationship between such cultural desires and the hidden and institutionalized experiences. This researcher set up the structural model in which the past embodied experiences are selected as the leading variable, diverse institutional channels are regarded as the parameters, and the cultural desires are set as final variables and conducted the analysis utilizing the structural equation.

As a result of the analysis, it was confirmed that cultural artistic education in the childhood as “embodied experiences” was an important factor that makes it possible to choose diverse institutions related to culture, so this researcher presented that it is important to learn by composing the cultural artistic education in the childhood as general institutionalization. Also, since 3 out of 4 parameters presented as “institutionalized experiences” were the variables that reinforce cultural desires, this researcher presented the importance of diverse institutions and channels, and since experiences of using media had greater effects than any other parameters, this researcher proposed that diverse media to enjoy cultural contents and diverse opportunities to utilize the media should be institutionally reinforced.

Key Words: Cultural desire, Cultural artistic education experiences in the childhood, Embodied experiences, “Institution” Related to Culture, Control and Phantom variable of Structural Equation Modeling(SEM)